2016 율곡학 인물이야기1

이재(李縡, 1680-1746)

이재는 김창협의 학통을 이은 수제자로서 노론 내 낙론학맥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영조 치세 연간 노론 벽파의 중심인물로 활동한 문신이다. 영조 연간 의리론(義理論)을 들어 영조의 탕평책을 부정한 노론 가운데에서 준론(峻論)의 대표적 인물이며, 윤봉구(尹鳳九), 송명흠(宋命欽), 김양행(金亮行) 등과 함께 당시의 정국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는 이간(李柬)의 학설을 계승해 한원진(韓元震) 등의 심성설(心性說)을 반박하는 낙론의 입장에 섰다. 심정진은 「제미호선생문(祭渼湖金先生文)」에서 사도의 도통을 논하면서 중국에서는 맹자 이후로 이정과 주자를 들고 동방에서는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우암 송시열을 이어서 도암 이재를 들었다. 그의 문하에 미호 김원행, 역천 송명흠, 녹문 임성주 등 출중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숙종 경신년(1680) 9월 28일에 태어났다. 임신 중에 민부인이 달이 수중에 드는 꿈을 꾸었는데 광채가 방에 가득하였다. 5세에 고아가 되었는데 중부(仲父) 충숙공이 가르침을 심히 부지런히 하셨고 안으로는 민부인의 인도가 또한 엄격하였다. 일찍이 베틀에 임할 때 실을 짜서 쌓아야만 한 필을 이룬다고 하여 학문도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훈계하니 명심하여 실추하지 않고 육예(六藝)와 학업을 일찍 성취하였다.

1702년(숙종 28) 알성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가주서·승문원부정자를 거쳐 예문관검열이 되어『단종실록』부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707년 문과 중시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문학·정언·병조정랑을 거쳐, 홍문관부교리에 임명되었다. 1709년 헌납·이조좌랑·북평사를 거쳐 사가독서(賜暇讀書)했고, 1711년 이조정랑으로 승진, 이어 홍문관의 수찬·부교리·응교·필선·보덕 등을 지내고 집의로 옮겼다. 1715년 병조참의·예조참의를 거쳐 다음해 동부승지가 되었다. 이어 호조참의를 거쳐 부제학이 되었을 때『가례원류(家禮源流)』의 편찬자를 둘러싸고 시비가 일자 노론의 입장에서 소론을 공격하였다. 이후 노론의 중심인물로 활약하였다.

1721년(경종 1) 예조참판, 강화부유수, 함경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산릉도감제조에 임명되어 토목의 일을 감독하여 다스리고 그 공로로 가의대부에 가해졌으며 대사헌·동지춘추관사를 겸하다가 실록청당상에 임명되었고, 이조참판에 제수되면서 실록청도청당상으로 승진하였다. 같은 해 예조참판을 거쳐 도승지가 되었으나 소론의 집권으로 삭직되었다.

신축년(1721) 겨울에 경종이 왕세제인 연잉군(훗날 영조)에게 대리청정을 명하자 소론 측에서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대신들이 백료를 이끌고 명을 거두기를 정청(庭請)했는데 참여하지 않고, “우리 왕께서 만일 병이 없고 후손을 낳을 바람이 있다면 진실로 후사를 미리 세울 필요가 없지만 이미 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참결(參決, 세제인 영조에게 국정에 참여하여 결정하라는 명)하라는 명을 하였으니 다만 마땅히 받들어야 할 것이지, 어인 일로 억

지로 다투어 論執하는가?”하였다. 얼마 후에 신임옥사에서 중부 충숙공 이만성(李晩成)이 조옥(詔獄)에 유폐되어 죽자 예로써 염장(斂葬)하고 인제 골짜기로 들어가 더욱 경전에 힘써 날마다 과정을 두었다.

1725년(영조 1) 영조가 즉위한 뒤 부제학에 복직해 대제학·이조참판을 거쳐 이듬해 대제학에 재임되었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 중심의 정국이 되자 문외출송(門外黜送) 되었으며, 이후 용인의 한천(寒泉)에 거주하면서 많은 학자를 길러냈다. 1740년 공조판서, 1741년 좌참찬 겸 예문관제학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직하였다.

여러 해 풍비(風痺)를 앓다가 병인년(1746)에 화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치료에 좋겠다고 하여 이에 가까운 고을의 벗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별하였다. 발행(發行)하여 광주에 이르러 병이 심해져서 낙생촌사(樂生村舍)에서 영명했는데, 이때가 10월 28일이었다.

항상 율곡의 ‘한 터럭이라도 성인에게 미치지 못하면 나의 일은 마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을 애송하고 “율곡은 나의 스승이시다.” 했다. 율곡의 明通하고 쇄락한 운치에 스스로 묵묵히 계합한 바가 있었다.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일찍 아버지를 잃은 것을 애통해 하여 모부인을 섬김에 깊은 사랑이 뜻을 봉양하는 효성에 드러났다. 거상(居喪)에 미쳐서는 채소만을 먹고 흡혈(泣血)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를 다하여 노쇠한 나이라고 하여 스스로 게을리 하지 않았다. 상례를 마치고 나서도 여전히 날마다 선영에 올라가 둘러보며 슬프게 살펴보았다. 말년에는 행보를 하지 못해 매번 견여(肩輿)를 타고 집 뒤의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묘소를 바라보고 부복하였는데 그 언덕을 첨경대(瞻敬臺)라고 불렀다.

예학(禮學)에도 밝아 많은 저술을 편찬하였다. 용인의 한천서원(寒泉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도암집(陶菴集)』, 『도암과시(陶菴科詩)』, 『사례편람(四禮便覽)』, 『어류초절(語類抄節)』 등이 있다. 영조 을미년(1775)에 정조가 서무를 대신해서 들을 때 특별히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않고 시호를 하사하여 문정(文正)이라고 하였다.

오희상(吳熙常, 1763-1833)이 이재의 묘표를 짓고 그 마지막에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 두었다.

“적이 논하건대 유자(儒者)의 일은 세 가지가 있으니 바른 진퇴, 정밀하게 발휘함, 크게 창명(倡明)하는 일이다. 셋이 갖추어진 연후에 비로소 성덕(成德)의 대현에 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선생은 비록 구학에서 뜻을 감추고 은거하였으나 종국(宗國)에 대한 근심은 간절하여 출사와 은거, 말과 침묵이 시대의 오륭(汚隆)에 관계되었다. 의리가 어두워지고 윤리강상이 서지 않으면 차라리 죽더라도 자정(自靖, 스스로 의리에 안주함)하여 후회하지 않았다. 민락(閩洛)이 이미 멀어 미언(微言)이 손상되자 이기와 심성에 대해 어지럽게 쟁송이 모이니, 이에 본원을 연구하고 진체(眞諦)를 지시하여 여러 어지러움을 꺾고 뭇 사람들의 미혹을 열어주었다. 이에 사도(師道)를 높이 들어 가르침을 널리 열고 순순히 인도하사 문채를 성대하게 일으켜 모범은 당시에 성행하였고 공리는 무궁한 후세에 미쳤으니, 체용을 겸전하고 중선을 다 갖추어 진실

로 명세(命世)의 유종(儒宗)이라고 이를 만하다. 그런즉 선생은 비록 조정에서 예복을 입고 바르게 서서 치군택민(致君澤民)의 초심은 이루지 못했지만 필경에 성취한 바는 이와 같이 탁연하니 과연 누가 그렇게 한 것인가? 옛날 장경부(張敬夫)가 이르길 '회옹부자(晦翁夫子)가 한가한 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궁구한 것은 아마도 하늘의 뜻일 것이다.' 하였으니 거의 먼 후세에도 부절을 합친 듯하다. 오호라 성대하다."

<참고문헌>
『영조실록』
김동준, 「도암 이재의 삶과 시문학」, 『한국한시작가연구』 14호, 2010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면행(金勉行, 1702-1772)

자는 경부(敬夫)이고, 본관은 안동이다. 증조부는 여주목사를 지냈던 김수익(金壽翼)이고, 조부는 호조정랑을 지낸 김성후(金盛後)이다. 부친은 진산군수였던 김시민(金時敏)이고, 생부는 이조참판으로 추증된 김시서(金時敍, 1681-1724)이다. 김시서는 문중의 김창협과 김창흡 형제에게서 수학했다. 그는 1721년(경종 1) 증광사마시에 진사 1등으로 합격하였으나 남인이 조정의 정권을 잡고 있어서 벼슬 생활을 포기하고 은거하였다.

1755년(영조 31) 정시문과(庭試文科) 병과 2등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벼슬은 참판에 이르렀다. 아들 김이정(金履正)은 1765년(영조 41) 식년사마시에 진사 3등으로 합격하였고, 1771년(영조 47) 정시문과(庭試文科) 병과(丙科) 4등으로 급제하여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가 되었다.

영조 32년에 정언이 되고, 35년에는 책례도감(冊禮都監)에 공이 있다하여 가자(加資) 되었다. 35년에 승지에 제배되어 소임을 다 하던 중에 38년 6월에 상소문을 접수하지 않은 건으로 찬배(竄配)의 처분을 받았다.

영조가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가뭄을 민망히 여겨 비가 오는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헌납 박치륭(朴致隆)이 “신이 지난번 듣건대, 용안현감 이정(李瀞)이 상소를 안고 와서 올리다가 후원(喉院, 승정원)에서 물리침을 당하자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뽑아 정원 문 밖에서 스스로 목을 찔렀다고 합니다. 엄숙하고 깨끗해야 할 궁궐 안에 이처럼 변괴의 일이 있었는데도 끝내 보고하지 않았으니, 거의 옹폐(壅蔽)하는 데 가깝습니다. 청컨대 그때의 정원에 있던 승지(承旨)는 아울러 삭직을 명하소서.”라고 하자, 영조가 죄가 삭직에 그쳐서는 안 된다. 멀리 찬배하라고 명하였는데, 그때의 해방(該房) 승지가 김면행이었다.

그러나 8월에 영조는 처분이 지나쳤다고 하고, 다음해 영조 39년에 대사간에 임명한다. 이후 승지와 대사간을 교대로 역임하던 중, 영조 47년 대사간으로 재임 중에 조엄(趙曮, 1719-1777)에 관한 일로 체직 당한다.

조엄은 문장에 능하고 경사(經史)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경륜(經綸)도 뛰어났던 인물이다. 경상도관찰사 재임 시 창원의 마산창(馬山倉), 밀양의 삼랑창(三浪倉) 등 조창을 설치하여 전라도에까지만 미치던 조운을 경상도 연해 지역에까지 통하게 하여 세곡 납부에 따른 종래의 민폐를 크게 줄이고 동시에 국고 수입을 증가하게 하였다. 또한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대마도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오고 그 보장법(保藏法)과 재배법을 아울러 보급하여 구황의 재료로 널리 이용되게 했다. 후에 제주도에서는 그의 성을 붙여 고구마를 조저(趙藷)라고 불렀다. 고구마라는 말 자체가 그가 지은 <해사일기(海槎日記)>에서 일본인이 ‘고귀위마(古貴爲麻)’라고 부른다고 기록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영조 46년(1770) 조엄이 이조판서로 있을 때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의 천거로 특별히 평안도관찰사로 파견되어 감영의 오래된 공채(公債) 30여 만 냥을 일시에 징수하는 등 적폐(積弊)를 해소하는 수완을 발휘한다. 그러나 토호세력들의 반발로 탐학했다는 모함을 받아 곤경에 처한다.

이 건과 관련하여 영조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조엄의 함답(緘答)을 읽도록 명하였다. 비국 당상 신회(申晦)가 말하기를, "신이 관서(關西)에서 온 사람에게 상세하게 물어보니 3자의 설은 실제로 있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대신(大臣) 및 여러 비국 당상들도 모두 신회의 말과 같았으나 영조가 여전히 의심스럽게 여겨 태천현감 이종영(李宗榮)과 전 의주부윤 홍억(洪檍)을 입시하도록 명하여 하문하였는데, 모두가 이런 일이 없었다고 대답한다. 또 전 서장관(書狀官) 이명빈(李命彬)을 불러다 사행(使行) 때 백성들이 정말로 눈물로서 간절히 하소연했는지의 여부를 물었는데, 이명빈 또한 울부짖는 자를 보지 못했다고 대답을 한다.

이때 김면행이 "3자의 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놀랍고 비참하게 합니다만 풍문은 믿을 수 없으며, 또한 마땅히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으니, 청컨대 암행어사를 가려 보내어 염찰하고 사실을 조사하게 하소서."라고 한다. 영조는 암행어사를 보내는 것이 사체(事體)가 중대하므로 대신이 청할 바가 아니라고 책망한다. 이를 두고 정언 남주로(南柱老)가 김면행이 암행어사를 청한 것은 사체(事體)가 경솔하다고 하면서 파직을 요청하자 그대로 했는데, 조금 있다 김면행을 다시 우윤에 제배한다.

훗날 정조 8년에 정조가 하교하기를, "기묘년(1759, 영조35) 책례 때의 상례(相禮)는 바로 참의 김면행(金勉行)이었는데 그의 아들 김이정(金履正)이 마침 승품(陞品)할 대상에 올랐으니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아직 후임이 차출되지 않은 상례에 전 교리 김이정을 의망(擬望)하여 들이라고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정조는 효의왕후와의 사이에 자손이 얻지 못했다. 그러다 나인 출신인 의빈성씨와의 사이에서 문효세자를 얻는다. 이때가 1782년 9월로 정조의 나이 31세 때 일이다. 정조는 문효세자가 태어난 지 만 22개월째인 1784년 7월 세자책례를 올린다. 이는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의 세자책봉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효세자는 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단명한 세자가 되고 말았다.

<참고 문헌>
『영조실록』
『일성록』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김문행(金文行, 1701-1754)

김문행은 자는 사빈(士彬)이고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증조부는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이고, 조부는 김창국(金昌國)이며, 부친은 돈령도정(敦寧都正)을 지낸 김치겸(金致謙)이다.

김수증은 김상헌(金尙憲)의 손자로 1650년(효종 1)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652년에는 세마(洗馬)가 되었다. 1670년(현종 11)에는 지금의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영당리에 복거(卜居) 할 땅을 마련하고 농수정사(籠水精舍)를 지었다. 그 뒤 1675년(숙종 1)에 성천부사로 있던 중에 동생 김수항(金壽恒)이 송시열(宋時烈)과 함께 유배되자 벼슬을 그만두고 농수정사로 돌아갔다.

그 후 1689년 기사환국으로 송시열과 동생 김수항 등이 죽자, 벼슬을 그만두고 화음동(華蔭洞)에 들어가 정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 후 다시 관직에 임명되어 한성부 좌윤, 공조 참판 등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모두 사퇴한 뒤 세상을 피해 화악산(華嶽山) 골짜기로 들어가 은둔하였다.

공은 1726년(영조 2) 증광사마시(增廣司馬試)에 진사 3등으로 합격하여 해주판관(海州判官)이 되었다. 1746년(영조 22)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을과(乙科) 2등으로 급제하여 부교리(副校理)를 거쳐 다음해인 1747년 수찬(修撰), 겸사서(兼司書), 겸문학(兼文學), 부교리, 응교(應敎)를 역임했다. 1748년에는 사간(司諫), 보덕(輔德), 익선(翊善) 및 동지사서장관(冬至使書狀官)을 역임했다. 1753년에는 승지(承旨)에 올랐고, 좌승지(左承旨)와 대사간(大司諫)에 이르렀다.

김문행이 부교리가 되는 과정이 영조 22년 “홍문관 도당록 회권” 항에 나온다. 영조가 “오직 인재를 가려 쓰는 과정에서 저절로 비율이 맞는다면 좋겠지만, 만약 서로 비율을 맞추려는 마음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곧 색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또 ”문벌만으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아주 옳지 못하다. 권점을 받은 사람이 그 직책에 걸맞지 않을 것 같으면 경들을 문책하겠다.” 라고 했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회권을 했는데, 6점에는 정순검(鄭純儉)·민백상(閔百祥)·김양택(金陽澤)·윤동도(尹東度)·김문행(金文行)이 뽑혔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6점이 최고점이다.

부교리로 임명 받은 김문행은 영조 22년 12월경에 종조부인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을 신원하는 소를 올렸다. 김창집은 김수항의 아들로, 숙종이 죽은 뒤 영의정으로 원상(院相)이 되어 온갖 정사를 도맡았다.

경종이 즉위해 34세가 되도록 병약하고 자녀가 없자, 영중추부사 이이명(李頤命), 판중추부사 조태채(趙泰采), 좌의정 이건명(李健命) 등과 함께 연잉군(延礽君, 영조)을 왕세자로 세우기로 상의해, 김대비(金大妃 : 숙종의 계비)의 후원을 얻었다. 1721년(경종 1) 다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상소해, 처음에 경종은 대소 정사를 세제에게 맡길 것을 허락했으나 소론의 격렬한

반대로 실패하였다. 수개월 후 소론의 극렬한 탄핵으로 노론이 축출되고 소론 일색의 정국이 되었다. 곧 이어 소론의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 등이 노론의 반역 도모를 무고해 신임사화가 일어나자, 거제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이듬 해 성주에서 사사되었다.

김문행의 상소는 문제가 되었던 "삼자(三字)"와 "삼변(三變)"에 대한 신원이 나온다. 삼자는 신하가 임금을 선택한다는 '신택군(臣擇君)'이라는 말이다. 삼변은 경종 원년(1721) 세제(世弟)의 대리 청정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측에서 처음에 대리 청정의 하교를 거두어 달라는 정청(庭請)을 베풀었다가, 경종이 뜻을 굽히지 않자 대리 절목(代理節目)을 정하여 연명으로 차자[聯箚]를 올리고, 소론의 조태구(趙泰耉)가 경종을 알현하자 이를 따라 들어가 대리 청정의 하교를 환수할 것[反汗]을 청하였는데, 소론측에서 이러한 정청·연차·반한을 삼변(三變)이라 하여 노론의 죄목으로 삼았다.

"신의 종조(從祖) 충헌공(忠獻公) 신 김창집(金昌集)이 40년 동안 조정에 있으면서 선대왕의 두터운 신임과 백발 단충(白髮丹忠)의 포장을 가장 많이 입어, 지우(知遇)에 감격한 나머지 죽음으로 보답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경묘(景廟)께서 병환이 위중하고 후사를 부탁할 사람이 없음에 이르러서는 밤낮으로 걱정하고 불안해 하다가, 마침내 두세 대신과 동심협력하여 위로 우리 자전(慈殿)과 경묘의 뜻을 받들어 드디어 큰 계책을 결정하였으나, 얼마 안 되어 화를 당하였습니다. ……

'신택군(臣擇君)이라는' 세 글자의 죄인은 신으로서는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만, 삼종(三宗: 효종, 현종, 숙종)의 혈맥은 오직 전하 한 분뿐이어서 노래를 부르고 송사를 하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오히려 우리 임금의 아드님이라며 추대를 하였는데, 더구나 신의 종조(從祖)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일찍이 민진원에게 대책을 결정한 일로써 말하기를, '오늘날 왕자가 많았다면 사변은 더욱 헤아리기 어렵겠으나, 우리 임금의 아드님은 오직 한 분뿐이고 또 천명과 인심이 이미 이리로 쏠리었으니, 다시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하였습니다. 민진원이 일찍이 이 말을 가지고 어전에 앙달하였으니, 대저 민진원의 충직한 성품으로 반드시 사사로이 아부하여 임금의 귀를 속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삼변(三變)의 설에 있어서는 그 때의 사세는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개 대리 청정의 교명이 세제 책봉 초에 갑자기 내려졌으므로, 백관을 거느리고 감히 도로 거두어들일 것을 청하는 것은 사리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비답이 간절하여 '〈세제가 옳은가?〉 좌우의 〈신하들이〉 옳은가?'라는 전교가 내려지기까지 하였으니, 곧바로 정청(庭請)을 철회하고 성명(成命)을 받드는 것 역시 사세로 보아 당연한 처사였으니, 이것이 정청을 연차(聯箚)로 바꾸게 된 동기입니다. 북문을 몰래 열고 역적 조태구가 갑자기 들어가니, 또 무슨 모양의 화를 일으킬지 몰라 다급하여 호흡을 다투는 판이었으니, 앞뒤로 함께 들어간 것은 뜻밖의 변고를 막자는 의도였으며, 절목(節目)을 작환(繳還)한 것 역시 눈앞의 다급한 사태를 미봉하자는 의도였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한결같은 정성은 참으로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혹자가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자가 있으면 문득 얼굴을 찌푸리고 길게 한숨지으며 말하기를, '지금의 세태를 보건대, 설령 성명을 봉행했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변고가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우선 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단서를 펴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하였습니다. 아! 앞뒤로 청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며 사세에 따라 대응한 것들이 한편으로는 종사(宗社)를 위하자는 의도였고 한편으로는 성궁(聖躬)을 보위하자는 의도였으니, 실로 일분의 사심도 그 사이에 개입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은 하늘의 해가 함께 밝혀 주고 있습니다. ……

전하께서 신의 종조를 표창한 일이 또한 많기는 하나, 오직 이 '세 글자' 및 '삼변'의 설만은 지금까지 분변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경신년(영조 16년, 1740)의 비망기에 아직도 신하로서 차마 듣지 못할 말들이 많이 있으니, 지난날의 흉당들이 이를 구실로 삼아 무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논하는 자들도 오히려 그때의 처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과거를 깨끗이 씻어버리려는 성상의 초심(初心)에 손상이 되지 않겠으며, 또 지하에서 품고 있는 억울한 원한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이 일은 내가 깊이 알고 있다." 하였다.

<참고자료>
『영조실록』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김원행(金元行, 1702-1772)

김원행은 자가 백춘(伯春)이고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호는 미호(渼湖) 또는 운루(雲樓)인데 미호가 널리 알려져 있다. 아버지는 승지 김제겸(金濟謙)이다. 당숙인 김숭겸(金崇謙)에게 입양되어 종조부 김창협(金昌協)의 손자가 되었다.

김창협의 수제자인 이재(李縡)의 문인이자 조선 후기 집권 계층인 노론 가문의 후손으로 학통을 잇는 존재가 되어 조야(朝野)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학자의 지위에 있었다. 당시 유수한 산림(山林)의 한 사람으로 명망이 높았다.

1719년(숙종 45) 진사가 되었으나, 1722년(경종 2) 신임옥사 때 조부 김창집이 노론 4대신으로 사사되고, 생부 김제겸과 친형인 김성행(金省行), 김탄행(金坦行) 등이 유배되어 죽음을 당하자 벼슬할 뜻을 버리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1725년(영조 1) 조부·생부·형 등이 신원된 후에도 시골에 묻혀 살며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그 후 여러 중책으로 불렀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 호학 내부에서 한원진(韓元震, 1682-1751)과 이간(李柬, 1677-1727) 간의 논쟁이 구체화되고, 이후 호론과 낙론이라는 지역적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는 상황 하에서, 김원행은 낙론의 학술적 입장을 대변하였다. 본래 낙학의 연원이 되는 김창협을 비롯한 가학적 전통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 낙론의 중심인물인 이재 문하에서 여러 학자들과의 학술 교류를 펼치며 자신의 성리학적 입장을 구체화하였다. 호락논쟁의 전면에서 학술논쟁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18세기 중반 이후 낙론의 성리학적 입장을 구체화하는 중심인물로 활동하며 낙론계의 학문을 주도하였다.

김원행의 성리설 형성과 관련하여 가장 교유의 폭과 깊이가 깊었던 학자로는 송명흠(宋明欽, 1705-1768), 송문흠(宋文欽, 1710-1752) 형제와 임성주(任聖周, 1711-1788)를 꼽을 수 있다. 송준길의 현손이자 김원행과는 고종사촌 간이었던 송명흠·송문흠 형제, 송명흠 형제와 이종사촌이었던 임성주, 이들은 모두 이재 문하에서 동문수학하였다. 이들은 당시 호락논쟁의 주요 쟁점은 물론, 예학과 경학 등 다양한 학문적 주제에 대해 활발한 학술토론을 전개했다.

김원행의 인물성론(人物性論)을 비롯하여 심설과 명덕설 등은 그의 문인 박윤원(朴胤源, 1734-1799)을 거쳐 19세기 초반 낙론을 주도한 오희상(吳熙常, 1763-1833), 홍직필(洪直弼, 1776-1852)에게 이어졌고, 20세기 초반 낙론의 중심인물로 활약한 전우(田愚, 1841-1922)에게 계승되었다. 한말 영남학계의 중심 학자였던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은 「서김미호인물성설후(書金渼湖人物性說後)」에서 '김원행의 성설은 대체로 지극히 정당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영조 38년에 영조가 주강(晝講)에서 『대학』을 강하면서, "문왕(文王)이 아들 노릇을 한 것은

효(孝)에서 그쳤는데 나도 효를 하고자 한다. 어제 진전(眞殿)에 전배하고 높은 곳에 올라 명릉(明陵)을 바라보고 왔다.” 또 영의정 홍봉한에게 말하기를, “세손의 관대(冠帶)와 의양(衣樣)이 꼭 나와 같으니 참으로 귀엽다. 내가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해야 한다는 말로 가르쳤는데, 비록 장래에 학문의 성취함이 어떠할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후덕(厚德)한 군자(君子)가 될 듯하니, 어찌 기특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홍봉한이 “왕손(王孫)이 이미 장성하였으니, 마땅히 봉작(封爵)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자 전지를 내리겠다 하고, 왕손 교부(王孫敎傅) 김이안(金履安)에게 “네 아비는 교목세신(喬木世臣)인데, 어찌 와서 나를 보지 않는가? 네가 모름지기 내 뜻을 가서 전하여 반드시 와서 보게 하라.” 했다. 김이안은 김원행의 아들이다.

영조 48년(1772) 조에 김원행의 졸기가 나온다. 간략하지만 김원행의 학문과 인품을 잘 설명하였다.

“성균관 좨주 김원행이 졸하였다. 김원행의 자는 백춘(伯春)으로 안동(安東) 사람이다. 충헌공(忠獻公) 김창집(金昌集)의 손자인데, 문간공(文簡公) 김창협(金昌協)의 후(後)로 출계하였다. 출생하면서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고 기개와 도량이 빼어나니 선배들이 모두 국기(國器)로 허여하였다. 임인년(경종 2년, 1722) 후부터는 산골에 물러가 살면서 오로지 위기(爲己)의 학문에 마음을 썼으니, 대개 문간공의 유서(遺緖)를 소술(紹述)한 것이다. 성명(性命)의 근본을 통견(洞見)하고 이기(理氣)의 묘(妙)를 깊이 탐구(探求)하였는데, 조용히 깊고 깊이 생각하더니 각각 그 극(極)을 이해하였다. 평소에 하는 사업이 평정(平正)·적실(的實)하고, 의리(義理)를 변별함이 엄확·명쾌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한 세상의 유종(儒宗)이 되었고 초선(抄選)이 되어 벼슬이 공조 참의·좨주·찬선(贊善)에 이르렀다. 성상의 권우(眷遇)가 융숭하여 정초(旌招)를 자주 내렸는데, 매양 그 정초가 아니면 가지 않는다는 의리로써 사양하며 종신토록 일어나지 않으니, 조야에서 애석하게 여겼다. 이때에 이르러 졸하였는데, 나이는 71세였으며 <미호집(渼浩集)> 약간 권이 집에 보관되어 있다.”

『미호집』은 서문과 발문이 없어 간행 연대는 알 수 없다. 서(書)에는 저자의 종장(宗丈)인 김시관(金時觀)과 성리설(性理說)에 관해 논란한 것, 유척기(兪拓基)와 예설에 대해 논한 것, 송명흠(宋明欽)·임성주(任聖周)·김종후(金鍾厚)·이완(李浣)·홍대용(洪大容) 등 당시의 많은 학자·문인들과 주고받은 서한들이 있다. 이 서한들에는 경의(經義)·심성(心性)·이기(理氣)·예설·사론(史論) 등에 관한 내용이 많아, 훈고학(訓詁學) 및 성리학에 관한 저자의 학문적인 영역이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다.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에서는 이간의 낙론(洛論)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며, 예론은 김장생·송시열의 예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영조실록』

박학래, 「미호(渼湖) 김원행(金元行)의 성리설(性理說) 연구(硏究) -18세기 중반 낙론(洛論)의 심성론에 유의하여」, 『민족문화연구』 71권, 2016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종후(金鍾厚, 1721-1780)

김종후는 자는 자정(子靜)이고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호는 본암(本庵) 또는 진재(眞齋)이다. 할아버지는 참판 김희로(金希魯)이고, 아버지는 시직(侍直) 김치만(金致萬)이며, 동생이 김종수(金鍾秀, 1728-1799)이다. 민우수(閔遇洙, 1694-1756)의 문인이다.

스승 정암(貞庵) 민우수는 20세 전 사마시(司馬試)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21세 때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을 닦았다. 김창협과 권상하의 문인이다. 후에 1743년 사헌부지평이 되었고 1750년 통정(通政)으로 승차(陞差)하면서 공조참의 겸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이 되었다. 1751년 사헌부대사헌을 거쳐 성균관좨주·세자찬선(世子贊善)·원손보양관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김종후의 동생 김종수는 1768년(영조 44)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예조정랑, 부수찬(副修撰)을 지내고, 왕세손 필선(弼善)으로 성실히 보좌하였다. 이 때 외척의 정치 간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리론이 정조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뒷날 정치의 제1의리로 삼은 정조의 지극한 신임을 받았다.

영조가 죽자 행장찬집당상(行狀纂輯堂上)이 되었고, 그 뒤 승지·경기도관찰사·평안도관찰사를 거쳐, 규장각의 제도가 정비되면서 제학에 임명되었다. 1781년(정조 5) 대제학에 올랐고, 그 뒤 이조판서·병조판서를 거쳐 1789년 우의정에 올랐다.

1792년에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가 올라와 사도세자를 위한 토역(討逆)을 주장하자, 예전에 정조와 대담했던 내용인 "순(舜)·주공(周公)과 같은 대공지정(大公至正)의 도리로서 부모를 섬김이 효도"라는 소를 올려 이 논의를 가라앉혔다. 임성주(任聖周)·윤시동(尹蓍東)·김상묵(金尙默) 등과 친하게 교유했다. 정조는 윤시동·채제공과 더불어 3인을 자신의 의리를 조제하는 탕평의 기둥으로 지적하였다.

김종후는 어려서부터 사부(詞賦)에 능하여 문명이 있었고, 1741년(영조 17) 생원이 된 뒤부터는 성리학자로 알려졌다. 1776년 지평(持平)에 이어 장령(掌令)·경연관을 역임하였다. 이에 1778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장령이 되고 경연관을 거쳐 자의(諮議)에 이르렀다.

그는 영조대 신임사화 때에는 장헌세자(莊獻世子)를 궁지에 몰아넣은 홍계희(洪啓禧)·김상로(金尙魯)·김구주(金龜柱)와 입장을 같이 하였고, 장헌세자의 장인인 홍봉한(洪鳳漢)을 공격하였다. 그 뒤 김구주가 제거되자 원빈(元嬪)의 오빠인 세도가 홍국영(洪國榮)을 따랐다. 다시 원빈이 죽고 홍국영이 물러나자 소를 올려, 그에게 기만당하였다고 변명하였다.

정조 4년(1780)에 김종후의 졸기가 기록되어 있다. <정조실록>은 정조가 죽은 지 6개월 뒤인 1800년(순조 1) 12월에 이병모(李秉模)를 실록총재관(實錄憁裁官)으로 임명하고, 편찬에 착

수해 1805년 8월에 완성되었다. 총재관은 이병모·이시수(李時秀)·서용보(徐龍輔)·서매수(徐邁修)였는데, 김종후에 대한 평가가 매우 박하다.

“장령 김종후(金鍾厚)가 졸하였다. 김종후의 자는 백고(伯高)인데, 우의정 김구(金構)의 증손(曾孫)이며 김종수(金鍾秀)의 형이다. 영조 때 경학과 품행으로 천거되었고 지금 주상이 즉위하여 경연관으로 누차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다. 항상 명의(名義)를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였었는데, 홍국영(洪國榮)이 축출될 적에 상소하여 보류하기를 요청하면서 몹시 사리에 어긋난 말을 하였으므로 식자들이 그의 창피함을 비웃었다. 이때에 이르러 졸하니, 특별히 은전을 베풀 것을 명하였다. 그에게 본암집(本庵集)이 있는데,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저서로는『본암집』이 있고, 편서로『가례집고(家禮集考)』,『청풍세고(淸風世稿)』가 있다.

『본암집(本庵集)』은 심환지(沈煥之)의 서문이 있고, 서(書)는 그의 스승인 민우수(閔遇洙)와 동문인 김자정(金子靜)·이경사(李敬思)·원인손(元仁孫)·홍자순(洪子順)·신광온(申光蘊)·임성주(任聖周)·강규(康逵)·이홍렴(李弘廉)·김원행(金元行) 등과 주고받은 서신이다. 주로『대학』·『논어』·『맹자』·『주례』 등 경전에 관한 것과 태극·영(靈)·음양오행·성(性)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잡저에도「심기질변(心氣質辨)」등 성리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가례집고(家禮集考)』는『가례』를 본문으로 삼고, 삼례(三禮: 儀禮·周禮·禮記)와 그 밖의 경전(經傳), 그리고 유학 및 그 이외의 여러 사상계열의 고전과 역사관계의 저술에서는 물론, 패림소설류(稗林小說類)에서까지『가례』의 예절과 관계되는 사항을 두루 모아놓았다. 유교관계의 문헌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자료까지 동원하여 사례의 관계사항을 추출해서 모아놓은 일은 전통적인 예절의 본질과 발달사정을 넓은 시야에서 고찰하고자 한 폭넓은 시야의 작업이기도 했다. 제자 임육(任焴)이 1801년(순조 1)에 간행했지만 널리 유포되어 이용되지는 못했다.

『청풍세고(淸風世稿)』는 조선 후기의 학자 김극형(金克亨)·김징(金澄)·김구(金構) 등 삼대의 시문집으로 1779년(정조 3)에 동생 김종수(金鍾秀)와 합편하여 간행하였다. 이들은 김극형의 5대손이다. 권두에 김양행(金亮行)의 서문이 있다. 권1은 김극형의『사천집(沙川集)』, 2·3은 김징의『감지당집(坎止堂集)』, 권4는 김구의『충헌집(忠憲集)』이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영조실록』
『정조실록』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남유용(南有容, 1698-1773)

남유용은 본관은 의녕(宜寧)으로 자는 덕재(德哉)이고 호는 뇌연(雷淵)·소화(小華)이다. 할아버지는 대사헌 남정중(南正重)이고 아버지는 동지돈녕부사 남한기(南漢紀)이고, 어머니는 청송 심씨(靑松沈氏)이다. 이재(李縡)의 문인이다. 영의정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이 아들이다.

1721년(경종 1) 진사시에 급제하여 강릉참봉(康陵參奉), 영춘현감(永春縣監)을 지냈다. 1740년(영조 16)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에 등용된 후 여러 관직을 거쳤다. 1754년(영조 28) 원손보양관으로 있다가 다음해『천의리편(闡義理編)』의 찬집당상(纂集堂上)을 겸하였고 이후 예문관제학, 좌부빈객, 대제학,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1752년 가선(嘉善)으로 승계한 뒤 승문원제조·대사성·예조참판·예문관제학·홍문관제학 등을 거쳐, 1754년에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이 되어 뒤에 정조가 된 세손을 세살 때 무릎에 앉혀 놓고 글을 가르쳤다. 이런 인연으로 정조는 그 은덕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1757년(영조 33) 원손사부(元孫師傅)를 거쳐 예조참판으로 옮겼고 1764년(영조 40) 우빈객, 1767년 봉조하가 되었다.

1772년『명사정강(明史正綱』을 편찬했으나, 서법이 존주지의(尊周之義)에 심히 어긋난다고 하여 영조는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는 그의 역사관이 성리학적 역사인식 방법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로 말미암아 장차 조선사기(朝鮮史記)를 편찬할 인물이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영조 33년(1757) 남유용이 원손사부로 있을 적에 영조가 원손을 불러 몇 가지를 시험하여 보고는 만족하면서, 하교하길, “눈앞의 급선무 중에 원손을 보도하는 것보다 큰 것은 없다. 사부 남유용은 교도(敎導)하기를 잘하여서 성취(成就)시킬 희망이 있다. 마땅히 가장(嘉奬)하는 뜻을 보이기 위하여 호피 한 벌을 특별히 내린다.” 이어서 "지금 이것을 경에게 주는 것은 경으로 하여금 고비(皐比)를 깔고 앉은 스승이 되라는 것이니, 경에게 포장하려는 것이 아니고 종사(宗社)를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영조실록』49년에 남유용이 졸기가 기록되어 있다. 남유용이 담박하고 순정한 인물이라고 적고 있다.

“봉조하(鳳朝賀) 남유용(南有容)이 졸하였다. 남유용은 고 대제학 남용익(南龍翼)의 손자인데, 자(字)는 덕재(德哉)이고, 호는 뇌연(雷淵)이다. 형 남유상(南有常)과 더불어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과거에 올라 승문원 부제학을 경유하여 세손보양관(世孫輔養官)·유선(諭善)을 거쳐 벼슬이 정경에 이르고 대제학을 지냈으며, 70세에 상소하여 물러가 쉬기를 청하니 봉조하를 제수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졸하였다. 사람됨이 탄이(坦夷) 하고 순실(純實)하여 세상일에 담연하였다.

정조는 남유용이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으로 글을 가르친 공덕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정조 16년 남유용의 아들 남공철이 과거에 합격하자 검교직각(檢校直閣) 서영보(徐榮輔)와 남공철(南公轍)을 불러 보았다.

남공철에게 이르기를, "네가 보양관(輔養官)의 아들로서 지금 문과에 급제하였으니, 내 마음이 감격스럽다. 고 재상 서문청공(徐文淸公)은 너의 아비와 더불어 같이 내가 어렸을 때의 스승이었는데, 네가 서영보와 동시에 조정에 서게 되었으니, 매우 귀한 일이다." 하고 전교하길,

"남 보양관(南輔養官)은 내가 3살 때부터 수학(受學)하였는데 무릎 위에 앉히고 성심으로 가르쳤으니, 내가 문자에 처음으로 향방을 안 것은 바로 남 보양관이 훌륭히 가르친 공로였다. ……내가 왕위에 오른 뒤에 비록 그 자손을 보살피기는 하였으나 어찌 그 공로를 보답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다행히도 그 아들이 문과에 급제하였으니, 그 가문을 위해 다행스러움이 적지 않다. 고 정승 서지수(徐志修)는 바로 남 보양관(南輔養官)과 더불어 같은 때 보양관의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손자가 과거에 급제하던 날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으니, 지금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고 봉조하(故奉朝賀) 남유용(南有容)의 집에 검교 직각(檢校直閣) 서영보(徐榮輔)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제문(祭文)은 내가 직접 짓겠다. 옷과 음식을 가지고 가서 그 부인의 안부를 물으라고 명하였다."

남공철은 1780년(정조 4) 초시에 합격하고, 1784년에 아버지가 정조의 사부였던 관계로 음보로 세마를 제수 받았고, 이어 산청과 임실의 현감을 지냈다. 그러다 1792년 친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초계문신에 선임되었으며, 친우이자 후일의 정치적 동지인 김조순(金祖淳)·심상규(沈象奎)와 함께 패관문체를 일신하려는 정조의 문체반정 운동에 동참했고 그 뒤 순정한 육경고문(六經古文)을 깊이 연찬함으로써 정조 치세에 나온 인재라는 평을 받았다.

정조 때에는 주로 대사성으로서 후진교육 문제에 전념했다. 순조 즉위 뒤 『정종실록』 편찬에 참가했으며, 아홉 번씩 이조판서를 제수 받고, 대제학을 역임했다. 1807년(순조 7)에는 동지정사로서 연경에 다녀왔고, 1817년에 우의정에 임명된 뒤 14년간이나 재상을 역임했으며, 1833년 영의정으로 치사해 봉조하가 되었다.

<참고문헌>
『영조실록』
『정조실록』
안순태, 「뢰연(雷淵) 남유용(南有容)의 삶과 한시」, 『한국한시작가연구』 17권, 2013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익수(閔翼洙, 1690-1742)

민익수는 자는 사위(士衛)이고 호는 숙야재(夙夜齋)이며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관찰사 민광훈(閔光勳)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이고, 아버지는 민진후(閔鎭厚)이며, 대사헌 민우수(閔遇洙)의 형이다.

조부 민유중은 숙종의 장인으로 인현왕후의 아버지이다. 자의대비 복상문제 때 대공설을 지지했다. 딸이 숙종의 계비가 되자 여양부원군이 되었다. 노론에 속했다. 경서에 밝아 명망이 높았다. 대사헌 민기중(閔耆重)과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의 동생이다.

부친 민진후(1659-1720)는 호는 지재(趾齋)이고 시호 충문(忠文)이다. 숙종 계비 인현왕후의 오빠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1681년(숙종 7) 생원이 된 뒤, 1684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正字)에 등용되었다. 1697년 충청도관찰사가 되었다. 대사간·강화부유수·형조참의·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1718년 숭록대부에 올랐다. 내국제조(內局提調)로서 홍문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뒤에 개성부유수를 지냈다.

공은 진사로서 세마(洗馬)의 자리에 올랐으나, 조정이 당론으로 소란스러운 것을 보고는 과거를 포기하고 동생 민우수와 함께 여강(驪江)으로 돌아가 은거하였다. 그 뒤 공조좌랑·사어(司禦) 등에 제배되었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1729년 재행(才行)으로 한덕필(韓德弼) 등과 함께 별천(別薦)에 올랐다가, 1737년 군자감정(軍資監正)에 음보(蔭補)로 기용되었다. 1740년 지평(持平)으로 대직(臺職)에 올라 그해에 장령(掌令)으로 승진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이른바 위시사건(僞詩事件)에 연류된다.

영조 16년(1740)에 위시사건과 관련하여 영조가 김원재(金遠材)를 친히 국문하면서, "네가 임금을 범하여 근거 없는 시(詩)를 진신(搢紳)들 사이에 전파하였는데, 이는 너 같은 어리고 미련한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주한 자가 있을 것이다. 사실대로 정직하게 공초하라." 명한다.

이에 김원재가 이 시를 집에서 보관하게 된 내력을 말하길, “그 시는 백망(白望)이 가지고 온 것으로, 어제(御製)라고 하면서 신의 집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전하여 주었는데, 또한 신의 아비가 세상에 살아 있었을 적에도 들었습니다. 성상께서 이미 이런 일이 없다고 하시니, 신이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공초한다.

아울러 이 시가 알려진 경우를 밝히는데, “신의 아비가 직접 국가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백망이 전하여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릉(穆陵, 선조)께서 신의 집에 내사(內賜)한 어필(御筆)과 함께 봉함하여 보관해 두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보여 준 일이 없었는데, 김진옥(金鎭玉)·민익수(閔翼洙)는 지친(至親) 사이이기 때문에 보여 주었을 뿐입

니다.”라고 했다.

정조가 김원재로 하여금 위시(僞詩)를 외어서 고하게 했다.

“동국의 대현은 사계옹이고/지극한 행실은 또 서하공이 있다.
서하공의 후손에 김공이 있는데/ 충효와 학문이 조부와 같다.
마치 상(商)나라의 부열255) 이 은거한 것과 같고/ 남양 땅에 제갈양이 은거한 것에 견줄 만하다.
태산 같은 높은 명성 들었으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지난밤에 갑자기 꿈속에서 만났네.
어느 때나 서로 만나 기쁨을 함께 할거나/ 태평연월 누리면서 꽃밭에서 취하고 싶네."

정조는 이 시가 정녕 거짓된 시라는 점을 거듭 밝히자, 김원재가 재차 말하길,

“신의 아비가 백망에게 속은 것인데 백망이 이 시를 어느 곳에서 얻었는지 신은 실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를 주고받을 즈음에는 신의 나이가 아직 어렸었으니, 무엇으로 연유하여 그것이 거짓인 줄 알았겠습니까? 단지 신의 집에서 전하여 오는 말만 들었을 뿐인데, 신의 어미가 을사년(정조 원년) 뒤에 비로소 이 시를 민익수(閔翼洙)에게 보였었으니, 민익수를 불러 물어 보면 혹시 그 진위를 변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하고 공초했다.

송인명 등이 민익수도 아울러 국문할 것을 청하였고 또 민형수(閔亨洙)가 위시(僞詩)를 깊이 믿었다는 것으로 죄를 가하려 했지만 정조가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이 시를 김원재 부친에게 전해주었다는 백망(白望)은 신임옥사에 관여된 인물이다. 신임옥사는 목호룡(睦虎龍)이 백망(白望)·오서종(吳瑞鍾)·정인중(鄭麟重) 등이 경종을 시해하고 이이명(李頤命)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거짓으로 고변하여 노론 4대신을 사사하게 하고 그 외 수백 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영조 16년에 위시사건이 발생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영조 18년에 민익수가 졸하였는데,『영조실록> 18년 조의 졸기는 다음과 같다.

전 사헌부 장령 민익수(閔翼洙)가 졸하였다. 민익수는 판서 민진후의 아들로, 자신을 단속하고 행실을 닦아 능히 그 가풍을 이었으며, 신축년·임인년 이후로는 과거 공부를 그만두었다. 대직(臺職)에 천거하여 제배하였으나 고사하고 끝내 명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이때에 와서 졸하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영조실록』42년 조에는 영조가 “민익수(閔翼洙)는 참으로 대가(大家)의 사람이다. 당습(黨習)에는 비록 몰두하나, 그 사람은 어질다.”라고 평했다.

『고종실록』12년 조에는 이최응이 “문충공(文忠公) 민익수(閔翼洙)는 일생동안 선정신(先正臣) 김장생을 존경하고 사모하였으며 학문은 극기(克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신사년(1701)과 임오년(1702)의 사화 후에는 한결같이 임금의 무함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기 때문에 조정과 선림들이 명분과 의리의 영수로 대하였습니다. 영묘조(英廟祖)의 50년 동안 의리가 해와 별처

럼 빛났던 것은 사실 문충공이 논의를 제창한 힘입니다. 영원히 조천(祧遷)하지 말도록 하여 높이 보답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고종이 윤허하였다.

<참고문헌>

『영조실록』
『고종실록』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형수(閔亨洙, 1690-1741)

민형수는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할아버지는 민유중(閔維重)이고, 아버지는 좌의정 민진원(閔鎭遠, 1664-1736)이다. 민익수와는 사촌간이다.

조부 민유중은 숙종의 장인으로 인현왕후의 아버지이다. 노론에 속했고, 자의대비 복상문제 때 대공설을 지지했다. 딸이 숙종의 계비가 되자 여양부원군이 되었다. 경서에 밝아 명망이 높았다. 대사헌 민기중(閔耆重)과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의 동생이다.

부친 민진원은 어머니가 좌찬성 송준길(宋浚吉)의 딸이고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숙종비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오빠이자 우참찬 민진후(閔鎭厚)의 동생이다. 1691년(숙종 17)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했으나, 1689년의 기사환국 이후 인현왕후가 유폐되고 노론 일파가 크게 탄압을 받던 때여서 등용되지 못하였다. 1697년 이광좌(李光佐) 등과 함께 홍문록(弘文錄)에 뽑히고 수찬(修撰)에 재등용되었다.

1715년 대사성으로 있으면서 『가례원류(家禮源流』의 간행을 둘러싸고 노론·소론 간에 당론이 치열해지자 노론 정호(鄭澔)를 두둔하다가 파직,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 1729년 중추부판사가 되어 「가족제복론 加足帝腹論」을 찬진(撰進)하였다. 그 뒤 당쟁을 종식시키려는 영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소론과 타협하지 않고 소론을 배격하는 노론의 선봉장으로 활약하였다. 1730년 기로소에 들고 1733년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공은 1719년(숙종 45) 사마시에 합격하고, 1725년(영조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1726년 설서(說書)를 거쳐, 검열(檢閱)·봉교(奉敎)·겸설서·한림(翰林) 등을 역임하였다. 1729년(영조 4년) 정언(正言) 및 별겸춘추로서 정미환국 이후 노론의 거두인 아버지가 밀려나고 소론이던 이광좌(李光佐)가 좌의정으로 등장하게 된 사실을 신원(伸寃)하는 요건으로 이광좌를 소척하려 하였다가 이천현감으로 쫓겨났다.

그 뒤 1733년 부수찬이 되었으나, 다시 이광좌를 소척하다가 갑산(甲山)에 유배당했다. 이듬해 풀려나 1735년 부교리·교리·부수찬 등을 거쳐, 1736년 승지·대사간·금천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739년 부사직(副司直)에 이르러서, 동생 통수(通洙)와 함께 다시 이광좌를 소척하다가 또 해남현에 찬배되었다. 뒤에 곧 풀려나 1740년 승지를 거쳐 도승지에 이르렀다. 1741년 형조참판을 거쳐, 함경감사 때는 북관의 진보(鎭堡) 설치에 힘을 기울였다. 아버지 민진원의 신원을 위하여 이광좌를 끈질기게 소척하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또한 파란을 많이 겪었다.

민형수가 부친 민진원의 신원을 위해 배척한 이광좌(李光佐, 1674-1740)는 이항복의 현손으로 소론의 영수였다. 1694년(숙종 20)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을 시작하였다. 1721년(경종 1) 호조참판을 거쳐 사직(司直)에 있으면서 왕세제인 연잉군(延礽君, 영조)의 대리청정을

적극 반대하여 경종이 이를 취소하게 하는 등 경종 보호에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1725년(영조 1)에는 영의정에 이르렀으나 노론의 등장으로 파직당했다. 1728년에 정미환국으로 소론정권이 다시 등장하자 영의정에 올랐다. 1730년에는 소론의 거두로서 영조에게 탕평책을 소하여 당쟁의 폐습을 막도록 건의했다. 1740년 영의정으로 재직하던 중 박동준(朴東俊) 등이 중심이 되어 삼사의 합계(合啓)로 호역(護逆)한 죄를 들어 탄핵을 해오자 울분 끝에 단식하다가 죽었다.

민형수가 정언이 되어 영조 5년에 올린 상소는 영조 4년에 일어난 무신난과 경종의 죽음에 대한 미묘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노론의 수장이었던 부친 민진원을 변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뇌관을 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조로부터 지속적인 견책을 받았다.

“아! 지난해의 흉악한 역적의 변고는 어찌 차마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변란은 발생하는 날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연유하는 바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니, 진실로 폐단의 근원을 뽑아 화근(禍根)을 끊지 못한다면, 한때 조금 안정된 것은 믿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의 근심이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개 일찍이 거슬러 올라가 논한다면 갑진년495) 대상(大喪)을 당했을 적에 편찮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휘음(諱音)을 받들게 되었었습니다. 약원(藥院)에서도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한 일이 없었고, 교문(敎文)에도, ‘한밤에 옥궤(玉几)에 기댔다496) ’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신민(臣民)들이 이르기를, ‘우리 임금께서 불행히 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홍서(夢逝)하셨다’고 하여 사모하여 통곡하며 망극(罔極)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더했었습니다. ……

조정 안에서는 또한 한 사람도 전하를 위하여 근본을 추구(推究)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여 위로는 성상의 무함(誣陷)을 변석(辨釋)하고 아래로는 간사한 마음의 싹을 꺾어버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신이 이런 때에 언관(言官)의 직책에 있으면서 어찌 명을 들은 즉시 달려나와서 극력 말을 하고 힘을 다해 논하여 전하께서 받으신 망극(罔極)한 무함을 남김없이 통쾌하게 풀어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 신자(臣子)가 된 사람으로서 임금과 어버이가 무함받음을 목도(目覩)하고 한마디 말도 변명(辨明)하지 못하고 있으니, 신(臣)은 진실로 인륜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소를 시작으로 민형수는 수차에 걸쳐 이에 대한 소를 올리고 그때마다 영조는 엄한 비답을 내린다.『영조실록』9년에 민형수의 소와 관련한 사관의 평이 기록되어 있다.

“무신년 이후로 이광좌(李光佐)·조태억(趙泰億)의 죄를 성토한 것으로 이 상소처럼 엄정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 주상(主上)은 위를 무함한 흉언(凶言)이 오로지 이광좌가 병을 숨긴 사실과 조태억의 교문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이제 와서 애초에 변명할 무함이 없다고 하였으며, 민형수(閔亨洙)의 무리가 변무(辨誣)한다고 말한 것이 도리어 역적의 구실거리가 되었다. 이것을 혐의로 삼아 점점 더욱 격렬해져 심지어 지난 일을 제기하여 말이 무엄하다는 하교가 있기까지 하였으니, 민형수의 무리가 임금이 무함당한 것을 변명한다는 구실로 이광좌와 조태억의 죄를 얽어 놓은 듯함이 있었다. 한 번 말한 것이 겨우 들어가자마자 엄한 견책이 뒤따라 장차 의리가 밝혀지지 못하고 흉도(凶徒)가 그치지 않게 되었으니, 식자(識者)의 근심과 탄식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사관이 거론한 조태구(趙泰耉, 1660-1723)는 최석정(崔錫鼎)의 문인으로 소론의 핵심인사다. 1702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검열·지평·정언 등을 지냈고 1721년 호조참판으로 있으면서 최석항(崔錫恒)·이광좌(李光佐) 등과 함께 세제(世弟 : 뒤의 영조) 책봉과 대리청정을 반대하여 철회시켰다.

『영조실록』17년 조에 기록된 민형수의 졸기가 다음과 같다.

"민형수는 문충공(文忠公) 민진원(閔鎭遠)의 아들이다. 정언(正言)이 되어 이광좌(李光佐)의 휘질(諱疾) 한 죄를 논핵하였다가 임금의 비위를 거슬려 삭출당하였고, 옥당(玉堂)에 들어와서는 또 이광좌의 죄를 극언하였다가 갑산부(甲山府)에 귀양갔다. 오랜 시일이 지난 후 석방되어 승지로 발탁되고 곧바로 다시 형조 참판에 발탁되어 조정에서 바야흐로 마음에 들어 임용하려 하였는데, 민형수가 성격이 소직(疏直)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말함에 진역(畛域)을 두지 않아서 조현명(趙顯命)의 유혹을 받아 위시(僞詩)를 들추어내어 국옥(鞫獄)을 이루게 되니 이에 민형수가 마음으로 통한(痛恨)을 하며 졸(卒)하였으므로 그 형(兄) 민창수(閔昌洙)가 진소(陳疏)하여 그 마음을 폭로하였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성원(朴聖源, 1697-1767)

박성원은 자는 사수(士洙), 호는 겸재(謙齋)이고,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이재(李縡)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재는 김창협의 학통을 이은 수제자로서 노론 내 낙론학맥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영조 치세 연간 노론 벽파의 중심인물로 활동한 문신이다. 영조 연간 의리론(義理論)을 들어 영조의 탕평책을 부정한 노론 가운데에서 준론(峻論)의 대표적 인물이며, 윤봉구(尹鳳九), 송명흠(宋命欽), 김양행(金亮行) 등과 함께 당시의 정국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는 이재의 학설을 계승해 한원진(韓元震) 등의 심성설(心性說)을 반박하는 낙론의 입장에 섰다.

박성원은 1721년(경종 1)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1728년(영조 4) 별시문과의 을과에 급제, 사간원정자·사헌부감찰 등을 역임하였다. 1744년 지평(持平)으로 있을 때 영조가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감을 반대하다가 남해(南海)에 위리안치(圍籬安置) 되었다가 2년 뒤 석방되었다. 세손강서원유선(世孫講書院諭善)이 되어 세손인 정조를 보도(輔導)하였으며, 참판을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공의 심성론은 스승인 이재의 학설을 지지함으로써 한원진(韓元震) 등의 호론(湖論)을 반박하고 낙론(洛論)에 동조하였다. 또한 예서(禮書)의 연구에 적극적인 힘을 기울여 연구과정에서 의혹된 점을 일일이 초출하여, 조목마다 사견을 첨부하여 『예의유집(禮疑類輯)』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후학들의 예서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저서로는 『돈효록(敦孝錄)』·『보민록(保民錄)』·『돈녕록(敦寧錄)』·『겸재집(謙齋集)』 등이 있다.

『돈효록』은 효에 관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박성원은 효가 만선(萬善)의 근원이고 지덕(至德)인 동시에 지도(至道)로 『효경』이 이러한 도덕연원의 근본으로 사람이 본받아야 할 귀감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효에 관한 지언(至言)과 격론(格論)을 여러 책에서 모아 『돈효록』을 편찬하였다. 원 제목은 '효경연의(孝經衍義)'라고 제목을 붙였으나, 스승인 이재(李縡)가 효행의 돈독함을 권장한다는 의미를 강조해 '돈효(敦孝)'라고 이름 지은 것을 존중하여 그대로 책이름으로 삼았다.

『예의유집』은 관혼상제을 해설한 책이다. 관혼상제에 대한 해설로서 주희(朱熹)의 『가례』를 따르지 않은 곳도 있다. 오복(五服)의 제도는 참최(斬衰: 거친 베로 짓되 아랫도리를 접어서 꿰매지 않은 상복) 3년부터 시작했고, 상장(喪葬)과 도구(道具)에 관해서는 치상도구(治喪道具)부터 기록하였다. 제례는 사례(四禮) 위주로 제현의 설 가운데 서로 같지 않을 때는 모두 기록한 것이 특색이다. 정조는 어제서문에서 "본조의 열성(列聖)이 유교를 진작한 뒤 300년 동안 예에 밝은 사람이 40~50가에 이르니 예에 대한 고훈과 학설이 각처에 산재해 한 데 모으기

가 어려웠는데, 박성원이 이를 극복하고 종법과 잡례를 총망라해 책을 만든 것이 가상해 교서관에 명해 간행하도록 한다."고 그 간행 경위를 밝혔다.

『영조실록』20년 조에 박성원이 영조에게 간쟁한 내용이 나온다. 당시 박성원이 대간에 나아가 11개 조목에 대해 간쟁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기로소에 들어가려는 영조에게 중지할 것을 간언한 내용이다. 영조는 박성원을 불러들여서 노기를 띤 채, "조신(朝臣)이 혹시 비슷하지도 않는데 기사(耆社)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이것을 반박하더라도 좋겠지만, 네가 감히 인군(人君)이 기사에 들어가는 것을 반박하는가? 존호(尊號)의 여덟 글자를 어찌하여 반박해서 바로잡지 아니하고 곧 이처럼 계달(啓達)하는가?"라고 엄하게 하교하고 박성원을 남해현으로 귀양 보냈다.

박성원의 11조목의 간쟁과 영조의 반응 및 제신들의 변론 및 의견을 기사를 적은 후에 사관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박성원은 임금과 소원한 신하로서 감히 말하기를 꺼리지 아니하였으니, 비록 그 마음이 과연 공의(公議)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 기백은 숭상할 만하고, 그 말도 또한 취할 만한 것이 많았는데, 특히 한 마디 말이 임금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 몸은 귀양 가고 그 말은 쓰이지 못했으니, 애석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다. ……"

<참고문헌>
『영조실록』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형수(徐逈修, 1725-1779)

서형수는 자는 사의(士毅), 호는 직재(直齋)이고 본관은 달성(達城)이다. 할아버지는 서종대(徐宗大)이고, 아버지는 현령 서명훈(徐命勳)이다. 이재(李縡)·김원행(金元行)의 문인이다. 김원행의 딸을 배필로 맞이했고, 대사성 서유망(徐有望)이 아들이다.

1751년(영조 2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척신(戚臣) 홍계희(洪啓禧) 등 요인들이 교유를 청해온 것을 거절하여 관계의 진출이 늦어졌다. 1757년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서 윤시동(尹蓍東)의 신구(伸救)를 청하였으나 당쟁을 일삼는다 하여 남해현(南海縣)으로 방귀(放歸)되었다가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1771년 교리로서 척신의 자제가 대거 대과(大科)에 급제하는 폐단의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승지로서 국가 대훈자(大勳者)의 특전이 너무 지나침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 해 벽파(僻派)를 탄핵하였다가 면직당하고 서인(庶人)으로 강등되어 쫓겨났다.

1773년 승지로 재기용된 뒤 대사간·강원도관찰사를 거쳐 1776년(정조 즉위년) 공조참의에 이르러 홍인한(洪麟漢)·이득신(李得臣) 일파의 전횡을 규치할 것을 계속 주장하였고, 그 뒤 대사간·좌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영조실록』33년 3월 기사에 정언 서형수를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여 남해현(南海縣)에 방귀(放歸)하도록 명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이는 서형수가 상서하길, "윤시동(尹蓍東)이 연좌된 것은 마음속에 품은 바가 있으면 숨기지 않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라고 하여 그를 신원하자, 영조가 명하길, “당습(黨習)을 다시 행하려 한다“고 하여 방축을 명하였다.

윤시동(尹蓍東, 1729-1797)은 1754년(영조 30) 25세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설서가 되었고, 정언·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1756년 당론을 일으켰다고 탄핵을 받아 7년간 전리(田里)에 방귀(放歸)되었다가 풀려났고, 1766년 대사간이 되자 신광집(申光緝)의 무죄를 논하다가 다시 전리에 방축되었고, 1776년(정조 즉위년) 경기도관찰사로 재직시 당론을 운위하다가 다시 남해현에 유배되었고, 그 뒤 형조판서로 있을 때 당론을 다시 운위하다가 삼화로 유배되었다. 김종수(金鍾秀)·심환지(沈煥之) 등 시파와 함께 벽파공격에 앞장섰고, 김한구(金漢耉)·홍인한(洪麟漢) 등 척신의 축재를 규탄하였다. 1795년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이 되었다.

서형수의 딸인 영수합(令壽閤) 서씨는 조선의 대문장가로 불리는 홍석주의 어머니로, 학문이 뛰어나고 겸손한 인품에 자식들까지 훌륭하게 키웠다.

서씨는 남자 형제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스스로 글을 터득했지만, 다른 형제들보다 빠르게 학문을 받아들였다. 서형수가 "세 아들이 모두 뛰어나지만, 네가 사내로 태어났다면 한세상을 풍미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서씨는 책 읽는 것을 좋아했으나, 아녀자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 홍석주는 사람들 몰래 어머니에게 책을 가져다주고는 했다. 남편 홍인모도 그녀가 학문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홍인모는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시를 읊으면 몰래 베껴놓으라고 지시했고, 자식들은 수백 편이나 되는 시를 기록했다. 서씨의 시는 『영수합고(令壽閤稿)』라고 하여 남편 홍인모의 문집 『족수당집(足睡堂集)』에 실려 있다.

서형수의 아들인 서유망은 1783년(정조 7) 생원시에 합격, 1803년(순조 3)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1806년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이 되었다. 1808년 전라우도의 암행어사로 나갔고, 이듬해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지냈으며, 1812년 대사성이 되었다. 어려서부터 독서에 정진하였으며 뛰어난 문장을 이루었다. 아버지를 본받아 청직(淸直)의 전통을 세웠다.

두 자녀를 통해서도 서형수의 학문과 인품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영조실록』
『정조실록』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송호석(宋瑚錫, 1693-1756)

송호석은 자가 자는 기여(器汝), 호는 몽와(蒙窩)이고 본관은 신평(新平)이다. 증조부는 송격(宋格)이고, 조부는 송지희(宋之熺)이며, 부친은 송득규(宋得奎)이다. 도암(陶菴) 이재(李縡)의 문인이다. 『심경연의(心經演義)』를 저술하였으며, 『몽와유고(夢窩遺藁)』 5권이 있다.

어려서 부친을 여의었고, 모친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모친이 연로하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며 기쁘게 해드렸다. 가난한 중에도 제수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모친을 봉양하는 데에는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잘못된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서 과실이 있는 자들은 함부로 집으로 드나들지 못했다.

도암 이재가 한천에서 강학을 할 적에 병들고 가난하여 이재의 문하에 직접 나아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글을 올려 질문하였는데 경전의 뜻을 밝힌 것이 많았다. 이재가 직접 면대하지 않더라도 글을 통해 학문을 논하는 것은 옛날의 도리하고 하면서 오늘날의 군자로 허여하고 위기무실(爲己務實) 네 글자로 권면하였다.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이 송호석의 행장을 지었는데, 그의 문집인 『이재유고(頤齋遺藁)』 卷18에 「몽와처사송공행장(蒙窩處士宋公行狀)」으로 전해진다.

황윤석은 김원행(金元行)의 문인으로 1759년(영조 35) 진사시에 합격, 1766년에 은일(隱逸)로서 장릉참봉(莊陵參奉)에 임명되고, 뒤이어 사포서(司圃署)의 직장·별제를 거쳐 익위사의 익찬이 되었으나 곧 사퇴하였다. 1779년(정조 3)에 목천현감이 되었다가 다음해 사퇴하였고, 1786년전생서(典牲署)의 주부를 거쳐 전의현감(全義縣監)이 되었다가 그 다음해에 사퇴하였다.

그의 학문은 실학시대의 학풍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것인데, 처음에는 이학(理學)의 공부에 힘쓰고 『주역』을 비롯한 경서의 연구도 하였으나, 북경을 거쳐서 전래된 서구의 지식을 받아 이를 소개한 공이 크고, 또 종래의 이학과 서구의 새 지식과의 조화를 시도한 점이 특색이다.

송호석의 손자인 송상은(宋相殷)이 승문원 정자로 있을 적에 조부의 문집 『몽와유고(蒙窩遺稿)』를 간행하려고 하면서, 김종후(金鍾厚, 1721-1780)에게 서문을 부탁한다.

김종후는 송호석의 학문은 궁리·정심·수신·정가(窮理正心修身正家)의 올바른 법도를 잘 드러내고 있으며 조금의 가식도 없다고 평한다.

또한 인물성오상을 논할 적에 주자가 논한 “위치가 다르면 이치의 발용도 동일하지 않다(所居之位不同則其理之用不一)”, “명덕은 심과 성의 합일이다(明德合心性)”, “마음은 리를 탑재한 기이다(心爲載理之氣)” 등을 가져와 변론한 내용은 탁견이라고 평한다.

송호석은 평생토록 도암 이재를 앙모하였고, 이재가 졸하자 제자의 예를 다했다고 적었다. 송호석이 비록 병들어 이재 문하에 나아가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편지로 올린 질문을 이재가 크게 허여하였고, 이재와 송호석이 면대하여 가르침을 수수하지는 못했지만 틀림없는 사제간이라고 했다.

아울러 송윤석이 보내준 「몽와처사송공행장(蒙窩處士宋公行狀)」을 읽으니 송호석의 학문과 인품이 출중함을 잘 알겠다고 했다.

김종후는 민우수(閔遇洙, 1694-1756)의 문인이고, 민우수는 김창협과 권상하의 문인이다. 그리고 이재는 김창협의 문인이다.

<참고문헌>
황윤석(黃胤錫), 『이재유고(頤齋遺藁)』
김종후(金鍾厚), 『본암집(本庵集)』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수이(愼守彛, 1688-1768)

신수이는 자가 군서(君叙), 호는 취한당(就閒堂)이며 황고선생(黃皐先生)으로 불렸다. 본관은 거창(居昌)이다. 조부는 신경호(愼景昈)이고 부친은 신부(愼桴)이다.

8세 무렵에 새잡이 그물을 치는 것으로 동네 아이들 끼리 옥신각신하다 욕설이 오고갔는데, 공이 사람은 양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거늘 한동네에서 사소한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이를 시로 지었는데 그 사리가 분명하였다.

장성하여 공부하러 다닐 적에 일상 언행을 소학에 따라 준행하여 소학동자라고 일컬어졌다. 나무를 깎아 패로 만들어 환성자(喚醒子)로 명하고 허리춤에 차고 다녔는데, 나무패가 부딪힐 때 나는 소리로 자신을 각성하였다.

한천에서 학문을 가르치던 도암 이재를 찾아뵙고, 수개월 동안 가르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제자의 예를 표했다. 이재는 공의 연수와 학문을 고려하여 도학지우로 지내고자 했으나 한사코 거부했다. 이재 또한 겸양하고 제자로 대하지 않았다.

공이 이재와 변론한 내용들은 사문 안에서 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가 졸하자 제자로서 심복을 하고 이재의 어록을 수정하였다. 공이 기록한 어록은 내용이 자세하면서도 분명하여 이재의 평소 가르침을 잘 전하고 있다.

공이 죽은 후에 구연서원(龜淵書院)에 배향하고 후에 도암 이재, 역천 송명흠과 더불어 성천서원(星川書院)에 배향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공은 기품이 순수하고 자질이 돈후하였으며, 의양이 단정했다. 평소 집안에 거할 적에도 경계하고 독실하게 처신하였다. 집안이 다스려지는 것은 아내에게 본보기가 되는가에 달려 있으니, 이것이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했다.

8권 3책으로 된 황고집(黃皐集)이 전한다. 증손 신필우(愼必祐) 등이 수집 편집하여 1845년(헌종 11)에 간행하였다. 시(詩)·서(書)·서(序)·발(跋)·기(記)·설(說)·상량문(上樑文)·제문(祭文)·애사(哀辭)·고축문(告祝文)·잡저·묘갈명(墓碣銘)·묘표(墓表)·행장·부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침착하고 돈중(敦重)한 학자의 면모가 잘 나타나 있고, 벗들과의 차운시·수증시가 많다.「한중만음(閒中謾吟)」에서는 초가을 활짝 갠 푸른 하늘 아래 자연과 함께 동화된 유유한 심회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서(書)에는 일상적 안부를 묻는 내용 외에 성리설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개진한 것도 다소 있다. 이재(李縡)는 당시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의 시비로 야기된 호락논쟁(湖洛論爭)의 진전

과정에서 윤봉구(尹鳳九)와 호서심설의 문제로 논쟁했는데, 이재는 낙론(洛論), 윤봉구는 호론(湖論)을 지지한 바 있었다. 서 가운데 이재에게 올린 「상도암이선생서(上陶庵李先生書)」는 당시 학계의 커다란 쟁점이 되었던 심설(心說)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여기서 공은 주희(朱熹)의 합이기설(合理氣說)을 들어 주기적(主氣的) 성향을 배척하였다. 별지에서는 장재(張載)의 이원론을 들어 주리(主理) 또는 주기의 일원론을 논박하고, 여러 선유(先儒)의 설을 인용해 심즉이기(心卽理氣)의 이원론을 논증하여 스승의 설에 동조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잡저의 「한천어록(寒泉語錄)」은 이재의 어록이다. 스승을 처음 만난 날로부터 죽을 때까지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자세히 적어, 덕행과 학문의 대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밖에 여러 논의들도 당시 심설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던 학계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영조실록』 영조 13년 조에 신수이에 대한 평이 나온다.

“경상도 감사 민응수(閔應洙)가 상소하여 도내(道內)에 있는 인재들을 천거하기를, ……안음(安陰)의 신수이(愼守彛)는 학문과 행실이 정밀하고 독실한데가 재능도 갖추고 있으며, ……”

<참고문헌>
신수이, 『황고집(黃皐集)』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이의(愼爾儀, 1685-1756)

신이의는 자가 가상(可象)이고 호는 취촌(醉村) 또는 명발와(明發窩)이다. 본관은 거창(居昌)이다. 부친은 신제윤(愼齊尹)이다. 어려서는 큰아버지인 신후윤(愼後尹)에게 수학하여 시에 능하였으며, 여러 번 향시에 합격하였다. 이재(李縡)의 문인이다.

신이가 학문의 기틀을 잡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이는 큰아버지인 대곡(大谷) 신후윤인데, 신후윤의 스승이 타우(打愚) 이상(李翔, 1620-1690)이다. 이상은 송시열(宋時烈)의 제자로서 김집(金集)의 학통을 이어받았다. 이상은 1658년(효종 9) 박세채(朴世采)·윤증(尹拯)과 함께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자의에 임명된 뒤, 산림직(山林職) 진선을 역임하였으며, 1661년(현종 2) 이후 지평을 비롯한 장령·집의 등의 사헌부 관직을 맡기도 하였다.

현종 말년의 예송(禮訟)에서 남인인 허적(許積)을 탄핵하다가 실세하였으나,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김수항(金壽恒)의 천거로 재등용되어 1681년에 사업이 되고, 형조참의·우윤·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1688년 이조참판으로 있을 때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고,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실세한 뒤인 1690년 옥사하였다.

이상이 신후윤에게 보낸 편지 중에, “동로(東老, 신후윤)처럼 출중한 능력으로 출사하지 않고 시골 사람 살림살이를 하고 있으니 무척 안타깝기도 하다. 그러나 내가 허명을 얻어서 출사하여 당화(黨禍)를 당하고 있는 것은 그대에게 좋은 경계가 되길 바라네.”라는 내용이 나온다. 신후윤은 이상의 고족으로 큰 기대를 받았다.

신이의는 30세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극진한 정성을 다하였고, 그 후 이재의 문하에서 학문에 정진하였다. 이재가 큰 기대를 하면서 궁리거경(窮理居敬)의 요체를 지도하였다. 56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역시 극진히 정성을 다했다. 이후로 환로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접고 오로지 학문에만 매진하였다. 명발와(明發窩)라는 호는 이재가 신이의를 위해 지어준 호이다.

60세가 다 되어서도 스승 이재로부터 서명(西銘)과 태극도설 등의 가르침을 받았다. 신이의가 『예기』에는 60세가 되면 가르침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아침에 도를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나이 들어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슨 부끄러운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재 또한 공의 정신이 가상하다고 칭찬하였는데, 이는 마치 우암 송시열이 그의 제자인 타로 이상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이재가 공에게 기대한 것이다.

이재가 죽자 3년간 심상(心喪)을 행하였다. 1751년(영조 27) 학행(學行)으로 선공감감역(繕工監監役)에 천거,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 해 가을에 세자익위사시직(世子翊衛司侍直)에 제수되자 “일흔 넘어 첫 벼슬이지만 원량(元良: 왕세자) 한번 뵙는 것이 소원이었다.”하고 벼슬에 나아가, 왕세자에게 『서경』을 진강(進

講)하고,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뜻을 상설하여 세자의 칭찬을 받았다.

강을 마치고 나면 세자의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록하여 부왕이 친람하도록 하였는데, 통례상 가급적 잘했다고 기록했었다. 그러나 신수의는 '천지의 도리는 공명정대하다. 어떻게 왕을 속일 수 있겠는가' 하면서 사실대로 성적을 매겼기 때문에 세자가 무척 싫어했다. 이에 맡은 바 소임을 마무리하고 물러나왔다.

공 다음으로 진강한 이강중(李剛中)이 우리라면 도저히 공처럼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탄식하면서 그 확고하고 분명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공은 이제 소원을 풀었으니 돌아가야지 하고 전혀 개의치 않았다. 임종에 즈음하여 효제근신독서궁리(孝悌謹愼讀書窮理)로 유서하였다.

공은『심경』,『근사록』,『가례』등에 정통하고 역학에 특히 조예가 깊었다. 소학은 평생 몸으로 실천했다. 경(敬)을 학문의 요체로 삼았다. "정자 때에는『소학』에 전주(傳注)가 없었는데, 정자가 경을 보충하였다. 이 경은 주자가 요체로 설명한 것이니, 주자가『소학』을 집주한 것은 다름 아닌 정자의 경이다. 따라서 경이야 말로 상하좌우전후를 관통하는 가장 긴용한 공부다"라고 했다.

심성론에 있어서는 남당 한원진이 주장한 "인물은 각각의 본연이 있다(人物各本然)", 미발에 선악이 공존한다(未發前淑慝), 명덕은 분수가 있다(明德有分數)의 설에 대해 체계적인 비판을 가한다. 또한 한원진의 인물성이론을 옹호한 병계(屛溪) 윤병구(尹鳳九)와도 변론하였다.

<참고문헌>
이상(李翔),『타우유고(打愚遺稿)』
임헌회(任憲晦),『고산집(鼓山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안극효(安克孝, 1741년 식년문과 장원)

안극효는 자는 사칙(士則)이고 호는 백강(栢岡)이며,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아버지는 첨추(僉樞) 안숙(安橚)이다. 사촌동생 안극권(安克權), 안극관(安克觀)과 더불어 이재의 문하에서 사사했다. 동문수학한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 목산(木山) 이기경(李基敬) 등과 막역지우로 서로 학문을 교류하였다.

안극효는 1741년(영조 17)의 식년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관에 들어가 사헌부의 지평, 장령, 헌납 등 주로 언관직에서 근무하였다. 성품이 강직하여 권력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활발한 언론을 펼쳤다.

일찍이 영조와 8촌간인 여천군(驪川君)이 동생 이학(李學), 외손인 이권책(李權冊) 등과 함께 투서를 조작하여 역모 혐의를 덮어 씌었을 때 안극효는 영조와 맞서 이들 종친을 법으로 다스리는 데 앞장섰다.

이후 결국 영조로부터 축출된 것도 이때의 언관 활동으로 미움을 샀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극효는 또한 중종 때의 명신 김정(金淨)을 문묘(文廟)에 배향하고자 여러 차례 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안극권은 유집사실(遺什事實)·세계비지(世系碑誌)·제현기술(諸賢記述) 등에서 고려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안향(安珦)에 대한 사적(事蹟)을 모아 『문성공실기(文成公實記)』를 1766년에 간행하였다. 안극권은 안향의 17대손이다. 책머리에는 대제학 이정보(李鼎輔)를 비롯하여 박성원(朴聖源)·송명흠(宋明欽) 등의 서문이 있으며, 16대손 안석근(安錫謹)의 발기(跋記)가 있다.

<참고문헌>

유제식, 「전북 지역문화의 성립기반과 그 맥락에 대한 연구: 전북유학의 전개」, 『전라문화연구』 3호, 1989.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유언집(兪彦鏶, 1714-1783)

유언집은 자는 사호(士鎬)이고 호는 대재(大齋)이며 본관은 기계(杞溪)이다. 아버지는 한성부 우윤 유직기(兪直基, 1694-1768)이다. 정조 때 영돈녕부사에 오르고, 정조 묘정에 배향된 유언호(劉彦鎬)는 그의 동생이다. 권상하(權尙夏)·이재(李縡)의 문인이다.

유직기가 『소학』의 「가언」과 「선행」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을, 유언집이 편집한 『대동가언선행』은 송대에 나온 『소학』의 「가언」과 「선행」 체제를 따라 조선 유학자들의 글에서 필요한 자료를 뽑아서 편집하였다.

『대동가언선행』은 아동 교육서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본받을만한 훌륭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은 대체로 『격몽요결(擊蒙要訣)』·『성학집요(聖學輯要)』·『퇴계언행록(退溪言行錄)』등에서 해당 내용을 뽑아 정리하였다. 유직기가 책을 엮으면서 우리나라 인물들의 언행과 덕행을 채택한 것은 중국과 차별되는 독자적인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조가 총애했던 실학자 이덕무(李德懋)는, "율곡이 지은 『격몽요결』은 소학의 사다리요, 유직기가 편집한 『대동가언선행』은 『소학』의 날개이다. 그 말이 모두 깊고 알기 쉬우니, 『소학』을 읽을 때 항상 참고하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라고 하였다.

유언집은 학행이 있어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정조 1년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유언집이 사직 상소를 올리자 정조가 다음과 같이 비답했다.

"그대가 일찍이 도관(道關)에 계합(契合)하고 학문에 잠심(潛心)하여 조예(造詣)의 공부와 의리(義理)의 정밀함은 본래 깊이 알았던 바이고 우연히 듣게 된 것이 아니었는데, 그대가 어찌 한결같이 지나치게 사양함이 이렇게 심한 데에 이른단 말인가? 그리고 그대의 소장 가운데 과업(科業) 운운한 것은 진실로 또한 지나치다. 퇴계(退溪)·율곡(栗谷)도 유독 과목(科目) 중의 사람이 아니었던가? 내 뜻을 마땅히 그대의 아우에게 유시(諭示)할 것이니, 그대는 신병의 차도가 있음을 기다려서 곧바로 길에 올라 내가 옆자리를 비워두고 바라는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라."

1778년(정조 2) 경연관이 되었으며, 1783년에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 되어 원자를 보도(輔導)하였다. 그 뒤 이조참의에 이르러 치사(致仕)하였다.

『정조실록』 7년 조에 유언집이 졸하자, 정조가 이에 하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유신(儒臣)은 내가 모앙(慕仰)하는 바이었으나 내 성의가 부족한 것 때문에 마침내 한 번도 조정으로 불러내어 함께 국가 일을 하게 되지 못했다. 매양 그의 아우가 고감에 따라 그

때마다 쏠리고 있는 이 마음을 표해 왔었는데, 어찌 오늘 그가 장서(長逝)하였음을 듣게 될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당면한 지금 세상의 도의가 풀려 버리고 민생에 대한 근심이 몹시 다급하므로, 이런 때를 바로잡아 구제해 가는 방책에 있어서 그윽이 임하(林下)에서 독서(讀書)하는 선비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다. 하물며 이 유신은 나이와 덕이 모두 높아 조야(朝野)가 의지하며 중시했었으니, 내가 기대하며 바라게 되는 바가 더욱 어떠했겠느냐? 이제는 그만이게 되어 버렸으니 다시 말을 한들 무엇하겠는가? 성복(成服)한 뒤에는 마땅히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겠는데, 제문(祭文)도 마땅히 친히 짓겠다. 무릇 은졸(隱卒)에 관한 범절을 한결같이 고 장령(掌令) 김종후(金鍾厚)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라."

연이어 사관이 다음과 같이 부언하였다.

"유언집의 자는 사집(士集)인데, 유언호(兪彦鎬)의 형이다. 젊어서부터 문정공(文正公) 이재(李縡)의 문하에서 노닐었고, 여러 차례 과거를 보았으나 급제하지 못했었다. 드디어 초복(初服)에 당하여 경학에 통달하고 덕행이 있음으로써 선발되어 벼슬이 이조참의에 이르렀으나 여러 차례 불러도 나오지 않았고, 몸이 고되도록 학문 연구를 늙어서도 그만두지 않다가 이에 이르러 졸하였다."

편서(編書)로는『오복명의(五服名義)』가 있다. 이는 고금의 예제(禮制)를 참작하여 다섯 가지 상복의 이름과 그에 대한 뜻을 적은 책이다.

정현(鄭玄)·주희(朱熹) 등 중국의 예학자는 물론 김장생(金長生)·박세채(朴世采) 등과 성리학자이며 예학자인 이황(李滉)의 학설을 망라한, 오복에 관한 예설을 집대성한 책이다.

인용된 참고도서는『주례(周禮)』·『의례(儀禮』를 비롯,『가례家禮)』·『개원례(開元禮)』·『정화례(政和禮)』·『개보례(開寶禮)』 등과 『당률(唐律)』·『당예의지(唐禮儀志)』·『송사예지(宋史禮志)』·『대명집례(大明集禮』·『대명회전(大明會典)·『상례비요(喪禮備要)』 등 두루 참고하였다.

이 책은 정구의『오복연혁도』와는 달리 군신관계의 상복부터 다루지 않고 부자관계의 본종복부터 설명하였다. 또한 단순한 도표가 아니라 왜 그러한 상복을 입는지 그 이유와 의의를 설명하였다. 이는 중국의 모방에서 벗어나 독자적·의식적으로 오복의 예설을 준행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정조실록』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유언호(兪彦鎬, 1730-1796년)

유언호는 자는 사경(士京)이고 호는 칙지헌(則止軒)으로 본관은 기계(杞溪)이다. 아버지는 우윤 유직기(兪直基)이다. 형이 은일로 이조참의에 천거된 유언집(兪彦鏶, 1714-1783)이다.

1761년(영조 37)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다음 해 한림회권(翰林會圈)에 선발되었다. 이후 주로 사간원 및 홍문관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1771년에는 영조가 산림 세력을 당론의 온상이라 공격해 이를 배척하는『엄제방유곤록(儼堤防裕昆錄)』을 만들자, 권진응(權震應)·김문순(金文淳) 등과 함께 상소해 경상도 남해현에 유배되었다.

다음 해에 홍봉한(洪鳳漢) 중심의 척신 정치의 제거가 청의(淸議)와 명분을 살리는 사림정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정치적 동지들의 모임인 이른바 청명류(淸名流)사건에 연루되어, 붕당의 타파를 탕평으로 생각한 영조의 엄명으로 흑산도로 정배의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왕세손이던 정조를 춘궁관(春宮官)으로서 열심히 보호했으므로 정조 등극 후에는 홍국영(洪國榮)·김종수(金鍾秀)와 함께 지극한 예우를 받았고,『명의록(名義錄)』편찬을 주관하였다. 자신의 이름이『명의록』에 올라 있기도 하다.

그 뒤 이조참의·개성유수·규장각직제학·평안감사를 거쳐, 1787년(정조 11) 우의정에 올랐다. 이듬해 경종과 희빈장씨(禧嬪張氏)를 옹호하고 영조를 비판한 남인 조덕린(趙德隣)이 복관되자 이를 신임의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정조의 탕평을 부정한다는 죄목으로 제주도 대정현(大靜縣)에 유배되었다가 3년 뒤에 풀려났다. 이후 향리에 칩거했다가 1795년 잠시 좌의정으로 지낸 후 다음 해 사망하였다.

정조 즉위년에 왕과의 대담에서 김구주·홍봉한 양 척신의 당을 모두 제거하려는 정조의 뜻을 잘 보좌하였다. 또, 영조 때 탕평책 하에서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통청권(通淸權)을 혁파하고 개정한 한림회권법을 회천법(會薦法)으로 되돌리려는 논의에서도 소시법(召試法)의 중요성을 인정해 정조의 청의와 의리를 우선해 조제하는 탕평책을 옹호하였다.

김우진(金宇鎭)·심환지(沈煥之)·김종수와 친하게 지내고, 홍봉한의 당을 공격함이 의리라는 김구주 당의 견해에 동조했으므로, 순조대에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된 이후에는 시파(時派)로부터 정조에 대한 배신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어려서부터 문학으로 이름이 있었으며, 외유내강의 인물로서 평가된다. 저서로는『칙지헌집』이 있다.

『정조실록』20년 조에 유언호의 졸기가 실려 있는데, 정조의 남다른 마음과 유언호의 인품이 잘 드러난다.

사관이 다음과 같이 총평을 하였다.

“영돈녕부사 유언호(兪彦鎬)가 죽었다. 언호는 자가 사경(士京)이며 영의정 유척기(兪拓基)의 족질이다. 젊어서부터 문학으로 이름이 알려졌고, 영종(英宗) 신사년에 등제하여 김종수(金鍾秀)와 함께 주연(胄筵)에서 지우를 받았다. 상이 즉위함에 미쳐서는 그에 대한 총애와 발탁이 다른 신하들과 아주 달라서, 몇 년 동안에 화요직을 두루 거쳐 정경(正卿)에 뛰어 올랐고 정미년에 정승이 되었다. 무신년 조덕린(趙德隣)을 복관(復官)시킬 때에는 상의 노여움이 대단하였으나 뜻을 크게 지키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로 인해 비록 외진 섬으로 정배되는 엄한 견책을 입었으나 오래지 않아서 사면을 받아 다시 정승에 임명되어 상의 권우가 더욱 융숭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죽자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이어서 정조의 하교를 기록하였다.

"지우를 받음이 동료들 가운데 가장 앞섰고 칭찬을 받은 것도 끝내 변함이 없었으니 같은 사람을 어디서 다시 찾아오겠는가. 이제는 죽었는지라 다시 볼 수 없게 되어 애석하고 불쌍한 마음에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다. 조정에서의 행적과 나를 정성으로 섬긴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속일 수 없는 공의가 있다. 그러니 포장하는 것은 지나친 칭찬에 가깝고, 하지 않으면 또한 사실을 매몰시키게 되는데 어찌 명정(銘旌)을 쓸 때까지 늦추겠는가. 의당 사관으로 하여금 군신 간에 서로 잘 만난 전말을 갖추 기술하여 징신할 증거로 삼아야 한다. 시호를 내리는 은전은 시장(諡狀) 짓기를 기다려서 속히 거행할 것이요, 조문하고 자손을 녹용하는 일은 관례에 의해서 거행하라.”

다시 시장과 관련하여 정조가 하교하길, “듣건대, 갑오년 이후에 주대(奏對)한 것과 그 사실들을 대신이 손수 기록하여 한 책으로 만들어서 가묘(家廟)에 보관해 두었는데, 비록 집안사람이라도 열람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니, 시장을 기다리지 말고 거행하라.” 하였다.

또 정조가 그를 두고 말하길, “외모는 비록 청수하고 허약한 듯하였으나, 마음속의 지조는 아주 확고하였었다. 연전에 탐라로 귀양 보낸 일은 내가 부득이해서였다. 어찌 털끝만치라도 그를 손상시키려고 했겠는가. 오직 이 한 가지 일만은 자신의 실수였으나 제우의 융숭함은 시종 변함이 없었다.”라고 했다.

장례 때에 유언호 집에서 유계(遺戒)가 있다 하여 예장(禮葬)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조가 하교하길, “시호를 청하지 말고 묘비를 세우지 말라고 했더라도 조정의 명령이 있으면 으레 모두 받는 법인데 더구나 예장이겠는가. 상주의 집에 유시하여 관례에 따라 받도록 하게 하라.”라고 했다.

1802년(순조 2)에 김종수와 함께 정조묘(正祖廟)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영조실록』
『정조실록』
『순조실록』
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6 율곡학 인물이야기17

양응수(楊應秀, 1700-1767)-2

양응수는 자는 계달(季達)이고 호는 백수(白水)이며 본관은 남원(南原)이다. 아버지는 승의랑(承議郎) 양처기(楊處基)이다. 어려서는 아버지의 외우(畏友)인 화산(華山) 권(權) 선생에게 배우고, 후에 이재(李縡)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공이 9세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극진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어른과 같았다. 부친상을 마치고 13세에 선친의 외우인 화산 권 선생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는다. 생전에 화산은 외우이니 가르침을 받도록 하라는 유명을 따른 것이다. 권 선생이 공의 총명함을 보고서, “내 친구의 아들이 여기 있으니 비록 몸은 죽었지만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해 12월에 모친상을 당해 지극 정성을 다했다. 17세에는 스승 권 선생이 졸하였다.

공은 본래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는데, 부형들의 기대가 있어 부득이 과업을 준비했었다. 24세에 과장에 들어갔다 마침 내린 비로 의관을 더럽힌 후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성리의 학문에 전념하였다.

38세에 한천에서 강학하고 있는 이재 선생을 찾아뵙고 사제의 연을 맺었다. 먼저 제자를 보내 이재 문하의 가르치는 법도를 살핀 후에 공이 직접 찾아뵈었다. 첫 만남부터 사제 간에 감복하고 기뻐함이 그지없었다. 공을 제자로 받아들인 후에 이재는 큰 기대를 했고, 사제 간의 정분이 부자처럼 다정했다.

56세에 건원릉참봉(健元陵參奉)에 제수되고, 이어 익위사부수(翊衛司副수)로 옮겨졌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일찍이 벼슬길에 뜻을 버리고 오로지 경학(經學)과 성리학(性理學)에만 전념해 「사서강설(四書講說)」을 남겼다. 만년에는 박성원(朴聖源), 김원행(金元行), 송명흠(宋明欽) 등 당시 석학들과 교유하면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천문학(天文學)에도 밝아 천체의 운행과 해·달·별 등의 천상(天象)을 도표로 만들어 우주관을 해설한 「혼천도설(渾天圖說)」을 지었다. 이기설(理氣說)에서는 스승 이재의 학설인 이일기이설(理一氣二說)을 바탕으로, 기(氣)의 본원은 하나이지만 동정(動靜)에 따라서 음양(陰陽)·이기(二氣)가 교합되어 오행(五行)·만물이 화생한다는 일기이기설(一氣二氣說)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람의 일신(一身)에는 혼백(魂魄) 또는 혈기가 있으며, 심(心)에는 이(理)와 지각(知覺)이 겸해 있다고 전제하고, 본연지기(本然之氣)와 혈기지기(血氣之氣)가 교합됨으로써 지각의 묘를 생한다는 「이기설(二氣說)」과 「지각설변(知覺說辨)」을 지었다.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에서는 낙론(洛論)을 지지하고, 호론(湖論)을 배척하였다. 만년에는 박성원(朴聖源)·김원행(金元行)·송명흠(宋明欽) 등 당시 석학들과 교유하면서 후진양성에 심

혈을 경주하였다.

「중용강설」에서 인물성동이론의 중요한 논쟁처인『중용』수장을 해석한 내용을 통해 공의 학문 규모와 엄밀함을 살필 수 있다.

(질문) '사람과 동물이 태어날 적에 각자에게 부여된 이치를 받아서 건순오상의 덕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각각 얻는다(各得)'이라는 말은 호랑이와 이리는 단지 부자간의 인(仁)만을 부여받았고, 벌과 개미는 군신간의 의리(義)만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인가?' (답) '그렇지 않다. 이는 호서학파(호론)의 입장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과 동물의 본연지성이 각각 다르다고 한다. 개끼리는 본연지성이 같지만 소와는 다르고, 소끼리는 본연지성이 같지만 사람과는 다르다. 사람끼리는 본연지성이 같지만 개나 소와는 다르다 하는 말은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질문) '그렇다면 동물도 오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답) '그렇다. 본성은 다섯 가지이지만 실상은 단지 생리(生理) 하나다. 인이 생리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인을 가지고 있다. 의예지신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개를 가지고 설명하면, 어미개가 새끼를 사랑하는 것이나 주인을 사랑하는 데에서 인을 볼 수 있다. 도둑을 막는 데에서 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하지 말하는 것은 순종하는 데에서 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인, 의, 예)를 아는 것이 지이다. 이 세 가지를 지키고 결코 허물지 않으며 주인을 죽을 때까지 따르며 결코 다른 이에게 가지 않는 것이 신이다. ……그래서 정자가 동물과 인간은 매우 비슷하지만 미루어 갈 수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고 했다. 또 혈기가 있는 것들을 모두 오상을 가지고 있지만 확충할 줄 모른다고 했다.'
(질문) '그렇다면 주자가 순수한 인의예지를 동물이 어떻게 완전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는가?' (답) '이는 정자가 미루어가고 확충하지 못한다고 한 말과 같은 맥락이다. 동물의 본연지성은 사람과 같지만 기품의 구속되어 오성의 전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인을 가지고 말하자면, 사람은 부모를 아끼고 타인을 사랑하고 만물을 아낄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애초에 남당의 말처럼 금수는 오성 중에서 인만을 품부 받거나 혹은 의만을 품부 받고 나머지 네 개가 없는 것이 아니다.'

호락논쟁은 외암 이간과 남당 한원진에게서 그 논쟁의 본말이 모두 시작되었는데, 이간은 양자 간의 논쟁점을 미발(未發)과 오상(五常)에 관한 논쟁으로 정리하였다.

미발에 관한 논쟁은, 이간은 미발시에 선악이 있느냐는 문제로 논의를 전개했다면, 한원진은 미발시에 기질지성이 있느냐를 문제로 논의를 전개했다. 이간은 미발시에 악이 있지 않다는 입장이고 한원진은 미발시에 기질지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오상에 관한 논쟁은, 이간은 오상을 인물이 모두 품부 받았다는 입장에서 인물성동론을 주장하고, 한원진은 오상은 사람만이 온전하게 품부 받았다는 입장에서 인물성이론을 주장한다. 한원진은 사람이 동물과 다른 근거로 오상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인의예지신 전체를 동물이 갖지 못하다는 설명을 했는데, 양응수는 이재의 논리를 따라 一理의 전일성을 기반으로 인의예지신을 동물도 갖고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

<참고문헌>
양응수, 『백수집(白水集)』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인물」, 전라문화연구소, 전북대학교, 1990
권오봉, 「白水 楊應秀의 讀書論에 관한 硏究」,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95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송명흠(宋明欽, 1705-1768)-2

송명흠은 자는 회가(晦可)이고 호는 늑천(櫟泉)이며, 본관은 은진이다. 고조는 동국 18현인의 한 명인 송준길(宋浚吉), 증조는 공조정랑을 지낸 송광식(宋光栻), 조부는 의금부도사를 지낸 송병원(宋炳遠)이다. 병원은 딸만 둘을 두어 동생 병익의 2자 요좌(堯佐, 1678-1723)로 계후하였다. 송요좌의 큰 아들이 송명흠이다. 송명흠은 동생 송문흠(宋文欽)과 더불어 당시 송씨 문중의 쌍벽으로 불리웠다. 이재의 문인이다.

송명흠은 어려서 부친의 가르침을 받았고, 9세에 이미 사서삼경을 재독할 만큼 영민하였다. 16세에 김육(金堉)의 현손인 김도흡(金道洽)의 딸을 배필로 맞이했다. 18세 때(경종 2년)에 신임옥사가 일어나 고모부 김제겸(金濟謙)의 부친이면서 노론 사대신의 한 명이었던 김창집(金昌集)이 죽고 김제겸도 유배지에서 사망했다. 송명흠은 부친 송요좌가 사화를 피해 벼슬을 버리고 옥천(沃川)으로 낙향할 때 함께 갔다.

23세 때 이재를 처음으로 찾아뵙고, 이후 자주 내방하여 수학하였다. 30세 때에 운평 송능상과 맹자와 주서(朱書)를 독서하였고, 12월에는 녹문 임성주와 운평 송능상과 모여서 독서하였다.

영조 15년 35세 때에 신임사화가 소론과격파에 의해 조작된 무옥임이 밝혀져 경신처분이 내려졌다. 신임사화가 마무리되자 영조는 세자 교육을 담당할 산림 천거를 요청하는데, 송인명이 세자의 강학을 위해 도학이 있고 행실이 바른 선비로 5명을 천거하였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송명흠도 있었다.

50세 때에 민우수(閔遇洙), 신경(申暻), 김원행(金元行), 송능상(宋能相), 최재흥(崔載興)과 함께 시강원 서연관으로 제수되었으나 어머니 병 때문에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1762년(영조38) 윤5월에 사도세자가 사망한 이후 송명흠을 다시 징소하면서 영조가 “마땅히 너의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상설(象設)을 바라보라. 칠순이나 되는 임금의 기대는 오직 호서(湖西)에 있고 동궁의 보도(輔導) 또한 산림(山林)에 있다. 글로는 뜻을 다할 수 없고 오직 ‘반드시 보고 싶다.[必欲見]’라는 세 글자가 있을 뿐이니, 모름지기 나의 뜻을 헤아리도록 하라.” 라고 했다.

59세(영조39) 때 3월 5일의 상소에서 영조를 조후(曹侯)비유한 ‘적불(赤芾)’이란 말로 영조의 노여움을 샀다. 적불(赤芾)은 붉은 무릎 가리개로, 대부(大夫)이상의 관원은 적불을 착용하고 초헌(軺軒)을 탔는데, <시경(詩經)> 조풍(曹風) 후인장(候人章)에 조(曹)나라 군주가 군자(君子)를 멀리하고 소인을 가까이하였으므로, 대부가 5인인 제후(諸侯)의 제도를 무시한 채 그 복색(服色)을 한 자가 수백 명이었으며 어진 이는 도(道)를 지키느라고 도리어 빈천(貧賤)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소인들이 조정에 가득한 것을 풍자한 말이다.

이에 대해 계속해서 초선(抄選)들의 상소가 잇따르자 영조는 “송명흠의 적불이란 말도 역시 산야(山野)의 당론”이라고 단정 지었다.

이후 박세채의 문묘 종향 문제로 당론이 이어지자 신경(申暻)、송명흠、홍계능(洪啓能)、김양행(金亮行)을 모두 초선에서 빼라고 명하면서 당습(黨習)은 망국의 단서인데 그 원인은 산림의 선비에게서 말미암았다고 글을 지어 유시하였다. 그리고 송명흠, 김양행, 홍계능을 서인으로 만들었다. 그 후 영조43년에 유림을 서인으로 만든 것은 3백 년 동안 없던 바라 하여 송명흠을 서인으로 삼으라는 명을 정지하였다.

『영조실록』44년 조에 송명흠의 졸기가 실려 있는데, 사관의 평이 다음과 같다.

“송명흠은 선정신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의 현손(玄孫)으로서 일찍이 가정의 학문을 이어받았으며 글을 읽고 몸을 닦아 사림(士林)이 추앙하는 바가 되었다. 정초(旌招)를 누차 내렸으니 뜻을 지키고 나오지 않더니, 은례(恩禮)가 갈수록 융성해지자 감격하여 조정에 나왔다. 전석(前席)에 출입하면서 애연히(藹然)히 서로 믿음이 있었는데, 마침내 처음의 예우(禮遇)를 계속하지 않기에 이르자 진소(陳疏)하고 지레 돌아감으로써 그 쓰임을 다할 수 없게 되었으니, 사론(士論)이 매우 애석하게 여겼다.”

송명흠이 이재의 문인이 된 데에는 부친 송요좌가 낙론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창협과 김창흡 형제 문하에서 수학하였던 배경을 작용했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연혼관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재의 부친 이만창(李晩昌)은 민유중(閔維重)의 딸과 결혼했는데, 민유중은 송존길의 사위이자 문인이다. 이재에게 송준길가는 어머니의 외가가 된다.

송명흠의 학연을 논할 적에 김창협→이재→송명흠으로 학통이 이어진다고 본다. 이재(1680-1746)를 김창협(1651-1708)의 문인으로 본다. 그런데 이재가 김창협에게 직접 지도를 받았는지는 다소 명확하지 않다. 이재 스스로가 김창협으로부터 직접 사사했다는 기록이 안 보이고, 김창협이 사망할 때 이재의 나이가 19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김창협에게서 직접 학문을 전수받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김창협과 이재의 관계는 직접적인 학문적인 사승관계보다는 연혼관계를 통한 사숙일 가능성이 높다. 이재는 어려서 숙부 이만성(李晩成, 1659-1722)에게 수학했다. 이만성의 배위는 김창협의 숙부인 김수흥(金壽興)의 딸로 이재에게는 작은어머니가 된다. 김창협과 이만성은 사촌처남과 사촌매제 사이다. 이재에게 이만성은 숙부이면서 스승이었고, 김창협은 이만성과 사촌처남매제의 관계다. 이런 연혼 관계로 이재가 김창협에게 직접 지도를 받지는 못했지만 사숙하여 학문이 낙론으로 귀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
『영조실록』
성봉현, 「늑천(櫟泉) 송명흠(宋明欽)의 학연과 경세관(經世觀)」, 『우계학보』34호, 2016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응구(申應榘, 1553-1623)-2

신응구는 자는 자방(子方)이고 호는 만퇴헌(晩退軒)이며,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증조는 판결사 신한(申瀚)이고, 조부는 가평군수 신여주(申汝柱)이며, 부친은 동지중추부사 신벌(申橃, 1523-1616)이다. 우의정을 역임한 신익상(申翼相)이 그의 손자다. 성혼과 이이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신벌은 명종 7년에 효자로 천거 받아 사재감참봉(司宰監參奉)이 되었고, 그 뒤 광흥창봉사(廣興倉奉事)·장악원직장(掌樂院直長)·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 등을 지내고 직산현감·개성부도사·안산군수·여산군수·단양군수 등의 외직을 거쳤다. 이 후 선조 27년에 세자익위사사어(世子翊衛司司禦)와 선공감판관(繕工監判官)이 되었다가 병으로 사직하고 향리에 돌아갔다.

80세에 당상으로 오르고, 아들 양주목사 응구(應榘)가 자기 아버지의 나이가 90이 되었으므로 은전을 베풀어줄 것을 아뢰자 왕이 실직제수(實職除授)를 명하여 1612년(광해군 4)에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가 되었다. 인품이 근엄하고 겸손하였으며, 직산현감 자리를 떠난 뒤 읍민이 송덕비를 세우자, 이를 철거하도록 하였다.

공은 1582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학문에만 정진하다가 천거로 장원(掌苑)이 되었다. 1588년 직산현감(稷山縣監)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가 그 뒤 임실·함열 등의 현감을 잠시 지낸 뒤 고향으로 돌아갔다.

1597년 어머니를 여의고 3년상을 마친 뒤 다시 관계에 들어가 형조정랑·한성부서윤·이천부사 등을 역임하였는데, 1602년 무고를 당하자 사직하였다.

경기어사 유몽인(柳夢寅)이 상고하길, “전 이천 부사(利川府使) 신응구(申應榘)는 중국 사신의 지공(支供)을 핑계로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의 70여 석이나 거두어다가 이를 강선(江船)에 가득 싣고 갔는데 끝내 어찌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체직되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증오하여 그의 살점을 먹고자 합니다. 응구는 명신 성혼(成渾)의 고제(高弟)로 당시 사람들이 사호(四皓)에 비유했었는데, 도리어 도척(盜蹠)도 하지 않는 짓을 하였습니다. 감사로 하여금 국안(鞫案)을 올려 보내게 하여 그 허실을 조사하게 하소서.”라고 했다. 이 기사를 적은 후에 사관이 평하길, “이것은 혼(渾)이 바야흐로 시론에 배척당하자 응구가 그 파도에 휩쓸린 탓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다시 충주목사·삭녕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610년(광해군 2) 공조참의가 되었고 그 뒤 양주목사를 역임하고, 1613년 이이첨(李爾瞻) 등이 폐모론을 주장하자 관직에서 물러나 충청도 남포(藍浦)로 낙향하였다.

그 뒤 조정에서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인조반정 후에 형조참의·동부승지·좌부승지 등을 거쳐 장례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춘천부사를 역임하였다.

『광해군일기[정초본]』 광해 11년 기사에 신응구가 사직하는 소를 올려 녹훈을 사양하는 기사를 적고 있는데 사관의 평이 박하다.

“응구는 조금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임되어 왕자의 사부가 되었는데, 주군(州郡)을 맡고서는 명성이 크게 떨어졌다. 또 몸가짐을 깨끗하고 바르게 하지 못하여, ‘관직에 있지 않으면서도 나라를 염려했다.’는 이유로 임해군(臨海君) 옥사로 공신에 들기까지 함으로써 사론(士論)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래서 겸손한 말로 녹훈을 사양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노자(奴子)로 하여금 궁궐에 드나들게 하였는데 왕이 모든 청탁을 다 들어주었으므로 사론이 추하게 여겼다.”

또한『인조실록』인조 1년 11월 조에는 졸기가 나오는데, 사관의 평이 역시 박하다.

“춘천부사(春川府使) 신응구(申應榘)가 졸(卒)했다. 응구는 젊어서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일찍부터 중망(重望)이 있어 당시 사람들이 모두 추허(推許)하였다. 그런데 폐조 때 임해군(臨海君)의 옥사(獄事)을 당하여 조진(趙振) 등과 함께 정훈(正勳)에 참여되었는데, 당시에 그를 일컬어 집에 있으면서 국가를 걱정한 공신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뒤에 양주 목사(楊州牧使)가 되어서도 행실을 삼가지 못하였다는 비난이 많았으니, 선사(先師)를 욕되게 하였다 하겠다.”

한편 그에 앞서 인조 1년 1월에 인조가 신응구를 춘천부사로 보내려고 하자, 재고를 요청하는 간관의 말은 신응구가 공직을 잘 수행한다는 평가다. 사관이 “춘천 부사(春川府使) 신응구(申應榘)는 과거 판결사로 있을 적에 임무 수행이 엄명하고 강어(强禦)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청단(聽斷)과 신리(伸理) 모두에 공평성을 얻었으니 당연히 그 직임에 오래 두어야 하는데도 갑자기 외관으로 옮겼습니다. 상규(常規)에 얽매이지 말고 특별히 잉임시켜서 청송(聽訟)하는 자리를 신중하게 하소서.” 하고 아뢰었다.

한편 김상헌은 신응구의 묘갈명에서 다음과 같이 공을 평하고 있다.

“공의 모습을 바라보니, 한 겨울의 눈 속에 늠름한 송백(松栢)처럼 우뚝 서 있었고 공의 중심을 살펴보면 이치가 분명하고 의리에 합치되어 얼음이 녹듯이 화평했도다. 약관(弱冠)에 향양(向陽)의 마을에 찾아가 배워 스승과 제자가 되었으니, 70명의 제자가 공자(孔子)를 따른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 세상에 어려움을 만나 조금만 시험해 보고 항상 곤궁하게 살았도다. 하늘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결국 창생의 한을 남기었도다. 아! 매우 슬프도다!”

신응구의 손자인 신익상의 졸기가『숙종실록』숙종 23년 조에 실려 있는데, 그 중에 “당시 조정의 형상이 오이를 가르듯 노론(老論)·소론(少論)의 색목(色目)이 있었는데, 신익상이 그의 조부(祖父) 신응구(申應榘)가 송시열(宋時烈)에게 배척당하였다 하여 유감과 한을 깊이 품고

있다가, 마침내 송시열에게서 떠나 소론의 무리가 되었었다."라는 사관의 기록이 나온다.

신응구에 대한 실록의 평가는 당론의 향배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선조실록』
『광해군중초본』
『인조실록』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익전(申翊全, 1605-1660)-2

신익전은 자가 여만(汝萬)이고 호는 동강(東江)이며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증조부는 우참찬 신영(申瑛)이고, 조부는 개성도사 신승서(申承緖)이다. 부친은 영의정 신흠(申欽, 1566-1628)이다. 김상헌(金尙憲)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신흠은 1586년 승사랑(承仕郎)으로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83년에 외숙인 송응개(宋應漑)가 이이(李珥)를 비판하는 탄핵문을 보고 “이이는 사림의 중망을 받는 인물이니 심하게 비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 일로 당시 정권을 장악한 동인으로부터 이이의 당여(黨與)라는 배척을 받아 겨우 종9품직인 성균관학유에 제수되었다.

이후 여러 벼슬을 거쳐 1623년 3월 인조의 즉위와 함께 이조판서 겸 예문관·홍문관의 대제학에 중용되었다. 같은 해 7월에 우의정에 발탁되었으며,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좌의정으로서 세자를 수행하고 전주로 피난했다. 같은 해 9월 영의정에 오른 후 죽었다.

벼슬에 나가서는 서인인 이이와 정철을 옹호하여 동인의 배척을 받았으나, 장중하고 간결한 성품과 뛰어난 문장으로 선조의 신망을 받으면서 항상 문한직(文翰職)을 겸대하고 대명외교문서의 제작, 시문의 정리, 각종 의례문서의 제작에 참여하는 등 문운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정구(李廷龜)·장유(張維)·이식(李植)과 함께 조선 중기 한문학의 정종(正宗: 바른 종통) 또는 월상계택(月象谿澤: 月沙 이정구, 象村 신흠, 谿谷 장유, 澤堂 이식을 일컬음)으로 칭송되었다.

공은 1628년(인조 6) 학행으로 천거되어 재랑(齋郎)이 되고, 이어 검열·정언·지평 등을 지냈다. 1636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그 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부응교·사인(舍人)·사간을 거쳐 광주목사(光州牧使)를 지냈다.

1639년에는 서장관으로 연경(燕京)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때 상사(上使)인 상국(相國) 최명길(崔鳴吉)과 기자묘(箕子廟)에 들러 제사를 지내면서 크게 강개하여 기휘(忌諱)하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이후 이때 한 말이 명나라를 부지하려 했다는 것이라는 이계(李烓)의 고변 때문에 고초를 겪었다.

인조 19년(1641) 이계(李烓)가 선성부사(宣川府使)로 있을 때 명나라 상선과 밀무역을 하다가 청나라에 발각되어 의주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청나라 장군 용골대(龍骨大)의 심문을 받고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최명길(崔鳴吉), 이경여(李敬輿), 신익성(申翊聖), 신익전(申翊全), 이명한(李明漢) 등이 명나라와 밀통한다고 무고했다. 신익전을 엮을 적에 최명길과 기자묘에서 기휘를 언급한 것으로 했다. 또한 공의 나이 52세 때인 효종 7년(1656)에는 청나라에서 사신이 나와 다시 이 일을 사문(査問)하자, 체직되어 청나라 사신이 머무는 곳에서 심문에 답해야

했다.

공의 나이 47세가 되던 효종 2년(1651)에 사위인 숭선군과 그의 조카 신면(申冕)이 김자점(金自點)의 옥(獄)과 조귀인(趙貴人)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었으나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논자들이 “이때에 능히 충신으로서 스스로를 보전한 이로는, 공이 충익공(忠翼公) 이시백(李時白)과 함께 아름다움을 나란히 할 수 있다.” 하였다. 이시백은 그의 아우 이시방이 김자점과 가깝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았다.

박세채는 「신도비명」에서 “만일 쉬움과 어려움을 따진다면 또 분별할 바가 있으니, 이는 어찌 공이 평소에 겸공(謙恭)하고 근확(謹確)했던 증험이 아니겠는가? 아! 훌륭하도다.”라고 했다.

이어서 신익전이 “염정(恬靜)을 숭상함에 뜻을 두어 나아가 벼슬하는 것을 일삼지 않았으며, 왕실(王室)과 인척 관계를 맺기에 미쳐서는 더욱 삼가하여, 비록 조정에서 벼슬하고 있으면서도 담담하기가 마치 초야(草野)에 거처하고 공허(空虛)한 데로 도피하는 것 같았으며, 기미(幾微)를 보고 간략함을 지켜 한결같이 옛 전적(典籍)에 종사하였으므로, 무릇 속세의 현회(顯晦)、장부(藏否)는 족히 그의 마음을 얽매지 못하였다.”라고 평했다.

『현종개수실록』 현종 1년 조에 신익전의 졸기가 적혀있다.

“전 참판 신익전(申翊全)이 죽었다. 익전은 문정공(文貞公) 신흠(申欽)의 아들이다. 집안 대대로 유아(儒雅)했는데, 익전 역시 문사(文辭)에 뛰어났다. 사람됨이 순박하고 겸허하였으며, 명가(名家)의 자제로 화현직(華顯職)을 역임하였는데, 권요(權要)의 직책에 당하게 되면 사양하며 피하고 처하지 않았다. 형의 아들 신면(申冕)이 권력을 좋아하여 패거리를 끌어 모으자 마음속으로 매우 싫어하며 늘 이 점을 자제들에게 경계시켰다. 신면이 이미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딸이 숭선군(崇善君) 이징(李澄)에게 시집갔어도 화복(禍福)의 갈림길에서 전혀 오염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들 인정하였다. 만년에 더욱 염정(恬靜)한 생활로 일관하며 세상일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이름을 간직하다가 죽었다.”

<참고문헌>
『현종실록』
『효종실록』
『국조인물고』
윤재환, 「東江 申翊全의 詩文學 硏究 : 戰亂 經驗의 詩的 對應 樣相 檢討」, 『동양학』 제56집, 2014
민족문화대백과사전